

중국 공부족(工布藏族)의 현황 및 종족 복음화를 위한 선교전략

- 중국 시짱자치구(西藏自治區) 린즈(林芝)지구

공부찌양다(工布江達)현을 중심으로 -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CFR(China Field Reserch) 14기 훈련팀¹

¹ 위 보고서는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CFR(China Field Research) 14기 훈련팀에서 2006년 12월 26일 - 2007년 1월18일까지 중국 시짱(西藏) 자치구 린즈(林芝)지구 공부찌양다(工布江達)현을 중심으로 공부족에 대해 현장조사 결과다. 조사팀은 김재현(산업정보디자인학부 '05), 김성은(국제어문학부 '01), 성혜린(법학부 '04), 장현(글로벌리더십학부 '06), 이택주(글로벌리더십학부 '06), 최새봄(글로벌리더십학부 '06), 박예림(글로벌리더십학부 '06), 박정언(글로벌리더십학부 '06) 안용덕(전산전자학부 '03), 이현빈(경영경제학부 '02) 이상 10명으로 구성되었다.

I. 조사 설계

1. 조사의 필요성

중국은 복음의 불모지였던 선교대상국에서 1억 성도의 선교사 파송국으로 변모해가면서, 백투예루살렘 운동의 시발점인 선교 중국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동북3성 지역 및 중국해안의 한족지역에 집중되어 왔던 선교활동이 이제 복음의 서진과 맞물려 중국 서부내륙의 소수민족 지역들로 옮겨져 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에는 공식적으로 55개의 소수 민족이 있고 Operation China에 의하면 45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이 있다. 이들은 그들만의 전통과 문화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미 그들의 종교는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현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한족의 문화와 동화되어 종족과 생활 양식에서 특색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 비록 이 소수 민족들이 중국에서 높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정체성 또한 많이 상실한 상태이지만, 중국의 소수 민족 선교는 여전히 중국 전체와 국경 주변 국가들의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통로로 여겨지고 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한 가장 큰 관문이자 장애물이 되고 있는 티벳불교권이 이 소수민족 지역(서부내륙의 소수민족 지역)에 해당하고 있다. 또한 하늘의 길 ‘칭짱철도’의 개통으로 감추어진 땅이었던 시짱자치구으로의 길이 열리면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조사팀은 시짱자치구의 짱족에 대해 리서치하기로 하였다. 이들의 지역과 종족 조사를 통하여 이들이 티벳(라마)불교의 헛된 영을 벗어나고 그들의 나라와 주변국가들의 귀중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종족을 조사하려 한다. 시짱자치구에 있는 7개의 지구 중에서 린쯔지구는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지역일뿐 아니라 그동안 CFR팀에서도 가보지 않은 곳이다. 특히 퐁뿌찌앙다 현은 지리적으로 린쯔지구의 가장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짱자치구의 수도인 라싸와 가장 가까운 현이다. 시짱자치구는 인구에 비해 땅이 넓기 때문에 지역 간의 거리가 상당히 멀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개방된 지역인 라싸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린쯔지구를 이어줄 수 있는 퐁뿌찌앙다 현이 양쪽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퐁뿌찌앙다현과 퐁뿌짱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시짱자치구의 문화적, 종교적 흐름을 판단하는것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조사의 목적

- (1) 중국 시짱(西藏)자치구 린쯔(林芝)지구 퐁뿌찌앙다(工布江達)현에 거주하는

공뿌짱족(工布藏族)을 조사하여 이들의 역사와 생활모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며 이를 통해 공뿌짱족의 종합성과 실체성을 파악한다.

(2) 본 조사를 바탕으로 위 지역과 종족에 적합한 선교전략을 생산한다.

(3) 또한 이를 한국 교계와 선교계에 알려 중보기도자와 현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선교사를 동원한다.

3. 조사지역

중국 시짱(西藏)자치구 린쯔(林芝)지구 공뿌찌양다(工布江達)현

4. 조사대상

중국 시짱(西藏)자치구 린쯔(林芝)지구 공뿌찌양다(工布江達)현 공뿌짱족(工布藏族)

5. 조사기간: 2006년 12월 27일 ~ 2007년 1월 18일

6. 조사인원

(1) 한동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CFR 훈련생 9명

- 1) 김재현 (05 산업디자인학부) - 디렉터/미디어부원
- 2) 김성은 (01 국제어문학부) - 예배부원
- 3) 성혜린 (04 법학부) - 통역/문서자료부원
- 4) 장 현 (06 글로벌리더십학부) - 예배부원
- 5) 안용덕 (03 전산전자공학부) - 문서자료부장
- 6) 이택주 (06 글로벌리더십학부) - 문서자료부원
- 7) 최새봄 (06 글로벌리더십학부) - 총무부장
- 8) 박정언 (06 글로벌리더십학부) - 미디어부장
- 9) 박예림 (06 글로벌리더십학부) - 예배부장

(2) 통역자 1명

- 1) 이현빈 (02 경영경제학부) - 중국어 통역

7. 조사방법

(1) 사전조사

티벳불교권 관련서적을 통하여 기본 개념을 익히고 티벳불교의 특징과 세계관, 종교의식들에 대해 정리한다. 짱족 관련 서적('황하에서 천산까지' , '티벳불교권 선교')을 통하여 그 민족의 문화와 종교 관념에 대해 알아보고 압두짱족(CFR 3기 보고서), 캄바짱족(CFR 5기 보고서), 라싸짱족(CFR 5기 보고서), 짜아롱짱족(CFR 13기 보고서)의 문화와 종족의 특징을 파악하여 꽁뿌짱족과 비교 분석하여 꽁뿌짱족만의 특징에 대해 파악한다.

(2) 현장 조사

1) 전문가 인터뷰

라싸 지역 선교사 인터뷰를 통해 꽁뿌짱족의 종교 현황 및 기독교 상황, 선교현황, 전략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다.

2) 현장 인터뷰

꽁뿌찌앙다현 현청 직원 인터뷰를 통하여 리서치 대상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 꽁뿌찌앙다현 현청 소재지 주민 인터뷰, 꽁뿌찌앙다현 내의 향, 진, 촌 단위 주민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의 실제 생활상 및 문화, 종교의식 등을 파악한다. 또한 현 교육기관(대학교, 초중고등학교) 인터뷰를 통하여 이들의 교육 실황을 조사한다.

3) 관찰 조사

꽁뿌짱족의 생활상과 문화에 대해 문헌자료 및 인터넷 자료, 인터뷰를 통하여 얻지 못한 실질적인 자료를 직접적인 관찰 조사를 통하여 자료화 한다.

8. 조사 성과와 한계점

본 조사팀에서 꽁뿌찌앙다 현을 방문하기 이전에 이 지역은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었다. 또한 이곳을 실제로 방문했을때에도 꽁뿌짱족의 특징을 잘 설명해주는 서적은 전혀 없었다. 기독교 사역자도 없기 때문에 기독교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사전조사와 약 3주간의 현장리서치 등을 통해 우리는 꽁뿌짱족의 전반적인 특징들을 많이 조사하고 발견할 수 있었다. 3개조로 들어가서 현지인들의 일상생활에 동참하여 그들의 생활속에 필요한 것들과 이런 환경 속에 사는 이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었다. 학교, 병원을

포함한 지역의 주요 건물들을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특히 마을 촌장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과의 인터뷰로 현장감을 더하였으며, 구체적인 선교전략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미 알려져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전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외국인이라서 언어 및 정서적 차이로 인한 한계 역시 존재하고 있었다. 꽁뿌짱족인들 중에 한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이들이 많지 않아서 활발한 대화에 어려움을 예상했었지만, 한어가 능숙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에 큰 어려움은 없었다. 한편 라싸 이외의 시짱자치구 지역은 아직 외국인 출입 제한지역이므로 외국인이 방문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중국정부가 발행하는 허가증이 필요한데 이 허가증을 소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들의 협력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각 조별로 리서치한 자료와 다른 짱족을 조사한 이전 조사팀의 보고서를 참고하며 비교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정보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보고서 작성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더 객관적인 보고서를 만들 수 있었다.

II. 들어가는 말

복음의 불모지에서 1억 성도의 선교사 파송국으로 변모해 가는 중국에서 소수 민족 선교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한족 지역에서만 집중되던 선교를 서부 내륙지역으로 그 눈을 돌리면서 티벳의 영혼들을 향한 눈과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현재 신장위구르 자치구, 그외 소수 민족의 자치구들은 중국 정부의 정책과 한족의 이주로 많은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다. 이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았고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곳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삼자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감추어져 있던 땅, 티벳의 영혼을 향한 발길은 무척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본 조사팀은 시짱자치구를 조사 지역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특히 다른 여러 나라들과 접경지역임을 고려할 때 중국 내부 선교의 중요성은 물론이지만 주변 국가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다. 복음의 발길이 대부분 시짱자치구의 수도인 라싸(拉薩)에 향하고 있고, 선교사들의 활동도 거의 이곳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조사팀은 시짱자치구의 7개 지구 중 하나인 린쯔(林芝)지구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지리적으로 린쯔지구는 시짱자치구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인도와의 접경지역이다. 린쯔 지구 안에서도 7개의 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본 조사팀은 그중 린쯔 지구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공뿌찌앙다현에 거주하는 공뿌짱족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칭짱철도 개통, 린쯔 공항 개항 등으로 시짱자치구에 대한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라싸지구와 린쯔지구를 이어주는 위치에 있는 공뿌찌앙다현의 공뿌짱족 조사를 통해 티벳의 문화, 종교, 가치관을 비롯한 여러가지 영역에서의 변화 상황이 잘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만들어진 보고서가 공뿌짱족을 비롯한 티벳에 만연해 있는 라마불교의 악한 영들이 무너지고 십자가의 진리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공뿌짱족에 대한 실체성을 파악하고 지역적 차원과 종족적 차원의 선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민족의 토속 신앙, 라마 불교 등의 헛된 영들이 이미 그들의 삶의 한 일상이 되어버린 현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들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영혼이 되기를 기도한다. 이 보고서를 통하여 이들을 중보할 중보자가 일어나 기도하며 선교사들의 사역 범위를 넓혀갈 하나의 시초가 되기를 기도한다.

III. 공부족(工布藏族)의 현황

1. 일반개요

(1) 지역개관

1) 지역에 대한 개괄적 설명

A. 시짱자치구 개관

시짱자치구는 면적이 250만 평방키로미터(km)이며, 수도는 라싸(Lhasa)이다. 인구는 넓은 면적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600만에 불과하다. 종교는 불교, 언어는 짱어를 사용하고 있다. 평균 해발고도는 무려 3,962m (13,000 feet)로 인간의 생존을 위한 자연환경은 비교적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산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초모랑마(Chomolangma; 에베레스트)인데 그 해발고도는 무려 8,848m (29,028 feet)나 된다. 평균기온은 7월: 14℃ (58°F), 1월: -4℃ (24°F)로 날씨 변화는 비교적 심한 편이다. 유명한 강으로는 알룽창포(Yarlung Tsangpo 또는 Brahmaputra), 메콩(Mekong), 인더스(Indus), 수트레지(Sutlej), 아룬(Arun), 카르날리(Karnali), 살웬(Salween), 양체(Yangtse) 등이 있으며, 총곤포(Tso-ngonpo), 남초(Namtso), 암드록-초(Yamdruk-tso), 마팜 욘초(Mapham Yumtso 또는 Mansarovar) 등의 호수가 있어 시짱자치구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짱족들의 대부분은 농경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부 중국인들은 이 지역에서 정부 행정기관/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시짱자치구는 수도 라싸 이외에도 우창(U- Tsang 중앙 티벳), 암도(Amdo 북부), 캄(Kham 남부) 등 대표적인 지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로는 인도, 네팔, 부탄, 부르마, 동 투르크메스탄이 있다. 현재 정치/종교적 지도자는 인도 H.P주 다람살라에 망명중인 14대 달라이 라마(His Holiness the Dalai Lama)로서 그는 1959년 인도로 망명한 이후 지금까지 망명정부를 대표하고 있다.

또한 시짱자치구는 중국의 서남부에 위치하며 7개의 지구로 나누어져 있다. 린즈 지구는 시짱자치구의 동남부에 위치하며, 공부족자강현은 린즈 지구의 서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III-1> 시짱자치구의 지리적 위치



<그림 III-2> 시짱자치구 행정구역

B. 린쯔지구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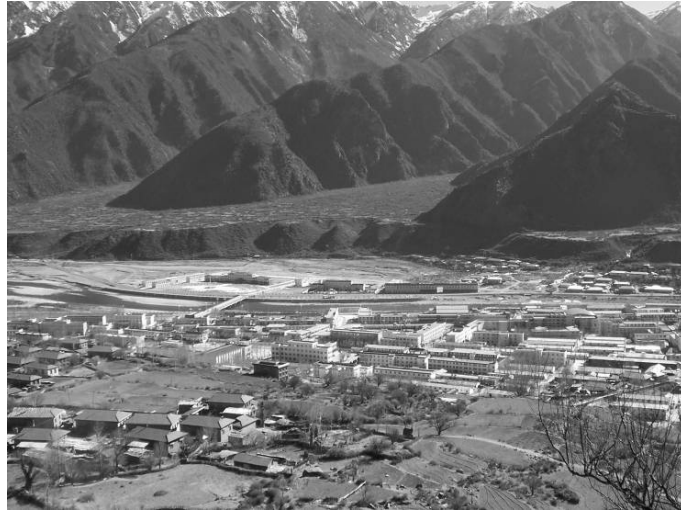
시짱자치구 동남부에 위치한 린쯔(林芝)지역은 3개의 거대한 산맥 (히말라야산맥 (喜馬拉雅山脈), 넨첸탕글라 산맥(念青唐古拉山脈), 횡단 산맥(橫斷山脈))의 품안에 위치하고 있다. 많은사람들은 린쯔(林芝)지역을 "티벳의 스위스" 혹은 "티벳의 중국 강남 경치"라고 부른다. 좋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린쯔 지역은 동남부는 운남성(雲南城), 참도(昌都)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북부는 낙추(那曲)지역과, 서부는 라싸(拉薩)지역, 서남부는 산남(山南)지역과, 남부는 인도(India) 및 미얀마(버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국경의 총길이는 1000km쯤 된다. 린쯔(林芝)지역은 린쯔(林芝), 밀링(米林), 쿵부찌양다(工布江達), 메톡(墨脫), 포메(波密), 자울(察隅), 랑현(郎縣) 이렇게 7개의 현(縣)으로 나누어지며 총 인구는 14만을 조금 넘는다. 린쯔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대협곡이 있는 지역으로 유명하며, 거기에 세계에서 가장 낙차(落差)가 큰 수직 지형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놀랄만큼 풍부한 식물과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하며 아직 인간의 능력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시 자연환경도 잘 보존되어 있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청정(淸淨)지역이기도 하다.

린쯔(林芝)지역은 국경과 가깝고, 아직 개발이 덜 되었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완전 개방된 지역은 아니다. 린쯔(林芝)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8.7℃. 한여름 최고기온은 20℃가 조금 넘는다. 기후는 시짱자치구 남부지역이기 때문에 아열대(亞熱帶) 기후에 속하지만, 지역의 높낮이에 따라 열대(熱帶)에서 한대(寒帶)까지 다양한 이상기후가 형성된다. 특히 알룽창포 대협곡 지대에서는 해발 고도에 따라 각각 다른 기후대의 특징을 보인다.

C. 쿵부찌양다현 개관

쿵부찌양다현은 시짱(西藏)자치구의 동남부에 위치한다. 현의 전체 동서 길이는

180 km이며 남북의 길이는 71km이다. 총면적은 12,886 m²이다. 그 중에 경작지의 면적은 5.4 묘(토지면적의 단위, 한국의 "정보"), 삼림면적은 65만 헥타르 정도이며 방목장의 면적은 17.2²묘 이다.



<사진 III-1> 공부찌양다현

현 전체는 6개의 향(鄉), 3개의 진(鎮), 88개의 행정 촌으로 분할되어 있고 총인구는 2만 5천명 이다. 그 중 농목(농업과 목축이 결합된 형태)을 하는 지구에 사는 인구가 21363명으로 현 전체인구의 94%를 차지한다. 행정은 시짱(西藏)자치구 린즈(林芝)지구에 예속되어 있다. 1986년에 린즈(林芝) 지구가 회복되어 성립된 이후 공부찌양다현 은 정식으로 린즈(林芝) 지구에 속하게 되었다. 공부찌양다현은 린즈(林芝)지구의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니양(尼洋)강'라는 강의 중 상류에 위치해 있어서 린즈(林芝)지구가 외부세계로 나가는 서쪽 대문의 역할을 하며 천장공로의 교통상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쪽으로는 라싸의 아래쪽 지구와 연결되며 라싸에서 린즈(林芝)지구로 갈 때 꼭 통과해야 하는 곳이다. 318국도가 공부찌양다현의 210km 정도를 통과하며 전체 8개 향진 중에 6개가 국도의 양쪽에 자리잡는다. 그 중1개 향, 진은 국가의 특 A급 풍경구인 '빠쑹취(巴松錯)'의 안에 있다.

현정부가 있는 '공부찌양다(工布江达)현'은 인구 4300여 명이며 공부찌양다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며 라싸에서는 276 km, 린즈(林芝) 지구의 행정소재지인 '빠이(八一)진'에서는 130km 거리이다. 2004년에 공부찌양다현 전체의 국내생산총액은 약 18012만 원(元)이며 연초계획의 100.07%를 달성하면서 전년대비 20.8%의 증가를 보였다. 재정수입은 약 886만 원(元)이며 연초계획의 103.02%를 달성하면서 전년대비 15.5%의 증가를

² 1묘 = 30평(坪:99.174m²)

보였다. 재정지출은 약 4242만 원(元)이며 연초계획의 100.07%를 달성하면서 전 동시기보다 909만 원(元)을 더 지출하였다. 기본건설은 7230만 원(元)으로 약 연초계획의 136.4%를 달성하였다.

자연환경은 꽁뿌찌앙다현 전체 지형은 서고동저의 형태이며 남북으로는 산봉우리와 삼림이 우거져 있다. '니양(尼洋)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횡으로 가로지른다. 최고봉은 해발 6691미터이며 최저는 해발 3180m이고 평균은 해발 3600m정도 이다 그래서 상대적 고도차는 1700-2000m이다 이러한 지형과 기후의 특색으로 인해 인도양의 온난하고 습한 기류의 영향으로 고원 온대 반 습윤 계절풍 기후의 형태를 보이며 기후는 온난습윤하며 사람 살기에 쾌적하고 강우량도 충분해서 '시짱(西藏)의 강남'으로 불린다. 현 전체에 야생동물과 삼림, 광산들의 자연자원과 생태관광자원도 풍부하다. 동식물자원도 풍부해서 각종 야생동물이 63종 야생식물이 287종이 있으며 삼림 면적은 14.9만 헥타르이며 그 중 삼림이 덮고 있는 비율은 27%. 삼림축적량은 3643만 평방미터이다.

수력자원은 니양(尼洋)강의 유역면적이 15459평방미터로서 낙차는 2273미터이고 연평균 유량은 220억 입방미터로서 매초 5338 입방미터 정도이다. 수자원 저장량은 208만 킬로와트이고 니양(尼洋)강의 큰 줄기 외의 기타 수많은 작은 지류들은 아직 정확한 측정이 불가하다. 꽁뿌찌앙다현의 낙차 큰 특이한 지형은 지역 경제와 산업발전에 유리한 풍부한 수량을 제공하며 수력 발전 외에 인간과 가축의 식용수, 농업관개용수로도 사용된다. 광산자원에서는 풍부한 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자연과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아직 많지 않은 부분이 조심스럽게 개발되고 있는 정도이며 현재 2개의 아연 등의 광산이 있다.

(2) 정체성

1) 종족명

꽁뿌짱족(工布藏族), 티벳인은 중국어로 짱(藏)족이라 한다. 짱족은 다시 라싸(拉薩) 짱족, 캄바(康巴)짱족, 암도(安多)짱족으로 나뉜다. 이들은 각기 다른 방언을 쓰고, 생김새와 성격도 다르다. 간쑤(甘肅), 칭하이(青海), 쓰촨(四川)에 사는 암도짱족은 외모가 잘 생겼고 언어도 제일 고급 언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암도짱족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15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시짱자치구의 동쪽에 있는 창더우(昌都)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캄바짱족은 숙련된 전사(戰士)들로서, 지금도 붉은 실을 꼬아 머리에 쓰고 남성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다닌다. 사용하는 언어는 저급한 편이라 한다. 캄바지역, 특히 동캄바지역에 기독교인이 400명 정도 있다고 한다. 라싸짱족은 라싸(拉薩)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곳은 시짱자치구의 정치, 경제, 종교 중심지로서 중간적인 성격을 띤다. 라싸짱족 기독교인은 100명 정도로 알려져있다. 꽁뿌

짱족은 이 중 라싸 짱족에 해당하는 짱족인데 꽁뿌찌앙다현 일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꽁뿌 짱족이라 불리고 있다. 반면 현재 대부분의 꽁뿌짱족의 가정에 TV와 DVD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 이들은 언어, 문화 등 여러 면에서 빠른 속도로 한족화가 진행되는 중이고, 자신 들만의 정체성이 많이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2) 주요언어

꽁뿌짱족의 주요 언어는 짱어이다. 꽁뿌짱족의 짱어는 라싸 짱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표준 라싸 짱어를 무난히 구사할 실력이면 비록 지역에 따라 언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는 해도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대부분의 꽁뿌짱족의 가정에 TV와 DVD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 한어를 배운 짱족이 많이 있다. 꽁뿌짱족이 사용하는 짱어는 크게 빠송어(巴松语), 꽁뿌어(工布语), 니양푸어(娘蒲语) 3가지로 구분이 된다.

① 빠송어(巴松语)

전설로 외지에서 들어온 네 선녀의 후예가 사용하는 언어라고 해서 썬화(神话)라고도 한다. 빠송(巴松)은 통상적으로 일컫는 지명인 ‘삼애(三崖)’라는 뜻으로, 추어까오향(错高乡)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새로 발견된 웨이장(衛藏) 방언에 속하는 토착어로서, 추어까오(错高)향, 자라(扎拉), 주빠(穷巴), 마이추어무(麦措木), 추어까오(错高), 지에빠(结巴), 루어치(羅池), 쉰에차향(雪卡乡) 쉰무쥬(敦木宗), 쉰아라(嘎拉), 무빠(甲拉), 무빠(木巴), 퉁마(东马), 추어쭈(措久)등지에서 2,500여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타 지역 짱어와 의사소통이 힘들다.

② 꽁뿌어(工布语)

본 조사팀이 리서치한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로써, 쥘다진(金达真), 쉰다향(江达乡), 쉰아롱향(峡龙乡), 쉰사향(仲沙乡), 주라향(朱拉乡), 쉰에카향(雪卡乡) 등의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③ 니양푸어(娘蒲语)

목축지역 언어(牧区语)로써 니양푸향(娘蒲乡), 자아썩향(加兴乡) 등의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다.

3) 주요종교

꽁뿌짱족은 다른 짱족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티벳 불교를 신봉하고 있다. 집집마다

달라이 라마, 포탈라궁 등 종교적 사진이 벽에 붙어 있고 집 안에 사당을 만들어 놓은 가정도 많이 있다. 빠이, 라싸, 커림카와 같은 주요 지역 혹은 일부 마을에 사원이 있는데, 이곳에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고 기도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라싸와 멀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포탈라 궁에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다른 짱족과 마찬가지로 꽁뿌짱족 역시 오체투지를 하며 라싸에 있는 포탈라 궁에 가는 것을 신성한 의식으로 여기고 있으며 주로 봄, 가을에 이것을 많이 한다. 오체투지를 할 때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무리를 지어 함께 다니는데, 마을마다 있는 초대소 혹은 차관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이러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티벳 불교는 오랜 역사를 통해 이들의 삶에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아 있고, 문화,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으로 주고 있다.

(2) 특징

꽁뿌찌양다현(工布江達縣)일대의 짱족이다. 웨이짱(卫藏) 짱족의 취빠(曲巴)와는 전혀 다른, 검은 색의 담요 또는 양이나 다른 동물 가죽으로 만든 구슈(谷秀)를 입는다. 자궤나(甲果纳)라고 하는 히말라야산의 소가죽으로 만든 붉은 색깔의 구슈를 최상품으로 친다. 끝 단과 술 곁에 은색비단실을 넣고, 허리부분에는 금색실로 도안 해 넣은 구슈는 소매가 없으며, 위에 둥근 구멍이 있어서 머리부터 입고, 은으로 장식한 허리띠로 허리를 단단히 졸라매고 앞쪽에는 칼을, 왼쪽에는 화살을, 오른쪽에는 활을 차 사냥과 나무하는데 사용한다.

남자들은 청에 비단실을 넣은 마치 배(船) 모양의 모자를 야크 털로 짠 모직포로 만들어 쓴다. 가뤄(嘎羅) 라는 바닥은 가죽으로 하고 모포로 만든 선명한 색깔의 장화 같은 신발을 신는다. 여자 역시 구슈를 입는데, 금실로 꽃무늬를 수놓거나 3cm정도 폭의 원숭이 가죽 또는 수달피를 댈다. 여자도 남자같이 배 모양의 모자를 쓰나, 청은 제비꼬리 형이다.

꽁뿌짱족인들은 대대로 깊은 산의 오래된 삼림가운데 살다보니 조상대대로 방목과 사냥, 나무 베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 과거에는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불편하여,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교통이 발전하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 및 교류가 점차 잦아지고 있다.

(3) 분포 및 인구

1) 지역별 분포,

꽁뿌찌양다현 전체 인구 중 약 94%가 짱족이다. 꽁뿌찌양다현은 3진 6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 전반적으로 짱족이 분포되어 있으며 대부분 꽁뿌짱족이다.

꽁뿌찌앙다현에는 마을에 따라 다른 종족(한족, 회족, 토족 등)의 비율이 높은 곳도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연령층은 마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령 추아까오 향의 제빠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반면, 주라 향 서나 촌의 경우에는 평균 나이가 60세 정도이다.

2) 마을별 인구수

꽁뿌찌앙다현의 인구는 약 2만 5천명이다. 그 중 짱족의 인구가 94% 가량이며 대부분이 꽁뿌짱족이다. 그 중 농목(농업과 목축이 결합된 형태)을 하는 지구에 사는 인구가 21,363명으로 현 전체인구의 94%를 차지한다. 마을별로는 류스나 촌(色拉村) 약 133명, 뤼츠 촌(洛池村) 약 300명, 지무송 촌(吉木雄村) 약 163명, 제빠 촌(结巴村) 약 500명, 빠송(巴松) 약 150명, 니비촌(尼比) 약 60명, 중촌(仲村) 약 60명, 지에띠촌(结地村) 약 220명, 쯡사촌(仲萨村) 약 240명, 낭격촌(娘格村) 약 120명 의 짱족이 분포되어 있다.

3) 인구이동

노령 계층에서는 인구 이동이 거의 없다. 젊은 계층은 큰 도시로 이주하여 살기 원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는데, 이것은 교육, 사업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다. 하지만 꽁뿌짱족 전체인구에서 외부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왜냐하면 사고방식의 차이가 많이 나서 외부 지역에서 적응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반면, 꽁뿌짱족이 아니지만 꽁뿌찌앙다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라마불교사원들을 도는 순례여행 등 다양한 이유로 꽁뿌찌앙다와 라싸 사이의 이동량이 많은 편이다. 교통 수단으로는 매일 1대씩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버스를 타거나, 다른 차를 타고 가기도 한다. 이 지역에는 대중 교통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자가용으로 돈을 받고 차량운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버스와 시간이 맞지 않을 때는 이러한 차를 이용한다. 특히 꽁뿌찌앙다의 중심지역인 꽁뿌찌앙다현에는 이런 만남이 이루어 지는 장소가 있어서 이곳은 항상 차량과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라싸 뿐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

(4) 위치 및 환경

1) 위치

꽁뿌찌앙다현은 시짱(西藏) 자치구의 서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지리는 동경 92° 09' -

94 25' , 북위 29 26' -30 36' 의 사이에 있다. 꽁뿌찌앙다현이 속해 있는 린쯔 지구의 남쪽은 인도와 접하고 있는데, 이곳은 인도, 중국간의 국경분쟁지역이기도 하다. 꽁뿌찌앙다 현은 린쯔 지구 중에서 라싸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미라산을 경계로 해서 캄바 짱족과 구분이 된다.

2) 지리

현의 전체 동서 길이는 180 km이며 남북의 길이는 71km이다. 총면적은 12886 평방미터이다. 그 중에 경작지의 면적은 5.4 묘(畝)³, 삼림면적은 65만 헥타르 정도이며 방목장의 면적은 17.2 묘(畝) 이다. 꽁뿌찌앙다현 전체 지형은 서고동저의 형태이며 남북으로는 산봉우리와 삼림이 우거져 있다. 니양(尼洋)(尼洋)(娘)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횡으로 가로지른다. 최고봉은 해발 6691미터이며 최저는 해발 3180m이고 평균은 해발 3600m정도 이다. 그래서 상대적인 고도차는 1700-2000m이다. 현 전체에 야생동물과 삼림, 광산들의 자연자원과 생태관광자원도 풍부하다. 꽁뿌인들의 어머니 강(江)이라 불리는 니양(尼洋)강은 야루짱뿌(雅魯藏布)강 북쪽의 최대 지류인데 야루짱뿌강의 5대 지류 중의 하나이다. 이 강은 ‘니양취(尼洋曲)’라고도 불리며 니양(尼洋)강은 전장 300여 Km이고, 강의 발원지에서 빙하가 녹아서 생긴 강물이 굽이쳐 내려가면서 계곡을 형성하며, 발원지는 해발 약 5000m정도이고 연평균 유량은 538 입방미터/초 이다. 그리고 연간 총 유량은 200억 입방미터에 이르고 낙차는 2273m이다. 수력 에너지의 저장량은 208만 킬로와트 정도이다.

이 지역은 대부분 높은 산들에 둘러 싸여 있고, 한쪽에는 니양(尼洋)강이 흐르고 있다. 산이 높아서 아침 10시~11시가 되어야 해가 뜬다. 그렇기 때문에 꽁뿌짱족인들은 대부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 니양(尼洋)강은 꽁뿌짱족인들의 주요 식수원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젓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에 니양(尼洋)강을 따라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이렇게 형성된 마을을 따라서 도로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몇몇 마을들은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다. 또 다른 몇몇 마을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지대가 높은 지역이나 평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도심에서의 거리가 그리 멀지는 않다. 꽁뿌찌앙다현은 린쯔지구의 서부에 위치해 있으며 니양(尼洋)강의 중, 상류에 위치해 있어서 린쯔지구가 외부세계로 나가는 서쪽 대문의 역할을 하며 천장공로(川藏公路)의 교통상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쪽으로는 라싸(拉薩)의 아래쪽 지구와 연결되며 라싸(拉薩)에서 린쯔(林芝)지구로 갈 때 꼭 통과해야 하는 곳이다. 318국도가 꽁뿌찌앙다현의 210km 정도를 통과하며 전체 8개 향진 중에 6개가 국도의 양쪽에 자리잡는다. 그 중1개 향, 진은 국가의 특 A급 풍경구인 빠송취(八松錯)의 안에 있다. 현정부가 있는 꽁뿌찌앙다현(工布江达县)은 인구 4300여 명 이며 꽁뿌찌앙다현(工布江

³ 1묘 = 30평(坪:99.174m²)

达县)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이며 라싸(拉萨)에서는 276 km, 린쯔(林芝)지구의 행정소재지인 '빠이진(八一镇)'에서는 130km 거리이다.

3) 기후

인도양의 온난하고 습한 기류의 영향으로 고원 온대 반 습윤 계절풍 기후의 형태를 보이며 기후는 온난습윤하며 사람 살기에 쾌적하고 강우량도 충분해서 '시짱(西藏)의 강남'으로 불린다. 동부는 온난 습윤하며 강우량도 충분하고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만, 서부는 한랭 건조하고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이 짧다. 연평균 기온은 6.2C 이고 연일조(태양이 비치는) 시간은 2016 시간이며 서리가 내리지 않는 시기는 연 156일이고 연강우량은 646 mm 이다. 봄, 가을은 짧고 여름, 겨울의 차이가 크다. 전체적으로 기후 편차가 심하지 않고 온화하기 때문에, 여름과 봄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겨울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 여름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인해 별다른 냉방기구가 없어도 서늘한 날씨를 띠고, 겨울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여 낮에는 한국의 겨울보다 따뜻하나 밤에는 매우 춥다.

(5) 지역역사

린쯔지구는 티벳의 이전 역사로 발차취를 밝을 수 있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0년에 신석기 시대 사람의 뼈와 무덤들이 니양(尼洋)강 근처에서 발굴되었다. 고고학에서 약 4000년 전에 린쯔 지구에 화전민들이 정착해 살았다. 발견된 유물 중에 어망과 화살촉들의 무게는 이들이 니양(尼洋)강, 야루짱뿌(雅魯藏布)강 유역과 현재는 말라버린 그들의 골짜기에 있는 호수에서 어업뿐만이 아니라 농업을 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 고고학자들은 이들을 하나의 부족으로 간주했으며 서부 티벳의 문화를 대표하는 뜻으로 린쯔(林之) 사람이라 불렀다. 린쯔의 역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퐁뿌에 있는 Demo Stone Board에서 찾을 수 있다. 1200년의 역사와 함께 이 기록은 여전히 보존되어 있다. 알룽부족의 첫번째 왕인 니트리 짬포(Nyitri Tsampo)는 보미(波密)에서 퐁뿌에 있는 참톡(Qamtog)산에서 왔다. 이 왕조는 7대까지 이어졌으나, 제 7대 왕인 짜궁 짬포(Zhigung Tsampo)는 왕위를 놓고 권력다툼간에 살해당했다. 그의 아들인 니트리(Nyitri)와 샤트리(Shatri)는 퐁뿌로 도주한 이후 샤트리는 알룽으로 돌아와 왕위를 회복하고 니트리는 그 도주한 지역에 남아 지역민들의 왕이 되었다. 왕권의 세습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사가(Sagya)와 파그모 주바(Pagmo Zhuba) 정권(13~16세기)에 린쯔지구는 티벳 불교의 영향을 받는다. 17세기 간다인 포드란(Gandain Phodran) 정권이 세워졌을때, 린쯔 지구는 몇 명의 지역 왕들에 의해(냐포이(Ngapoi), 강조인(Gyangzoin)과 가일하(Gyailha))나뉘어지게 되고, 이후에 가남 데바(Garnam deba)의 밑으로 젤하(Zelha), 조모(Jormo), 조이카

(Xoika) 와 가인다(Gyainda)로 다시 나뉘어 진다. 1931년에 티벳 정부는 보미를 보두이와 보미부족으로 나누고 모투오지구(우리나라의 도)를 모투오부족으로 수정했다. 1951년 티벳은 해방되었으며, 1963년 10월에 보미국가를 참도 지구(우리나라의 도)에 포함시켰으며, 린즈, 공뿌찌앙다, 미린 그리고 모투오를 라싸의 지배하에 두었다. 1986년 2월 1일, 린즈 지구의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7개의 지역, 즉 린즈, 미린(米林), 공뿌찌앙다, 모투오(墨脫), 보미, 차위(察隅) 그리고 랑(朗)(55개의 향과 614개의 마을)으로 개정하였다.

(6) 요약

시짱자치구의 평균 해발고도는 무려 3962m (13,000 feet)로 사람의 생존에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시짱자치구는 오랜 시간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었는데 최근 2006년 칭짱철도가 완성된 이후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있고,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 그 중 공뿌찌앙다현이 있는 린즈지구는 시짱자치구의 동남부에 위치한다. 전통적으로 짱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라싸 짱어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TV, DVD등의 영향으로 언어,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족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어를 사용하는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라마불교를 신봉하고 있고, 집집마다 종교적사진을 붙이고, 오체투지를 하는 등 신앙적 모습이 많이 발견된다. 주로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고, 인구가동이 그리 많지는 않다. 다만 젊은 계층은 교육, 사업등의 혜택을 위해 큰 도시로 이주하기도 한다. 높은 산들에 둘러 싸여 있는 지리적 특성상, 겨울에는 아침 10시 가량이 되어야 해가 뜨기 때문에 이들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 약 4000년 전에 이 지역에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어업, 농업 관련된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기후 편차가 심하지 않고 비교적 온화한 공뿌찌앙다현 일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특히 이들의 젖줄이 되는 니양(尼洋)강을 따라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현재 티벳 지역이 문화적으로 조금씩 개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속도가 결코 빠르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에 먼저 적극적으로 티벳문화권으로 들어가는 선교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언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공뿌짱족은 한어를 조금씩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하지만 좀 더 깊은 교제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짱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짱족은 지역에 따라 짱어가 달라서 한쪽의 언어만 가지고 다른 짱족과 의사소통하기에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뿌짱족의 짱어는 라싸 짱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라싸 짱어를 무난하게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이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

2. 정치분야

(1) 개요

1949년 중국은 ‘단 하나의 중국(只有一個中國)’이라는 통일 정책을 시행하였다. 중국은 정권의 안정과 영토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국내적으로는 분열의 소지가 많은 소수민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종교적·민족적 문제로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티벳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행동을 용인하지 않았다.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경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소수민족이 독립을 주장하고 나온다면 정권은 물론이고 영토도 흔들리게 된다. 따라서 중국은 소수민족 정책에 자본과 국력을 투자하고 있다. 1950년 중국 공산당은 티벳을 점령하여 중국의 일부로 귀속하였고, 이후 티벳은 1965년에 시짱자치구가 되었다. 점령 이후, 중국 공산정부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여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라마교를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라마교를 믿으며 살아온 티벳 민족을 사회주의혁명 대열로 참여시키고, 그들을 라마교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 역대 공산정권은 많은 체적정책을 사용하며 다루어왔으나, 결코 티벳 민족을 그들의 종교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었다. 단지 그들로 하여금 무신론을 주장하는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심만 부추긴 결과를 낳았다. 티벳 민족의 정치적, 종교적 우두머리인 달라이라마는 민중의 힘을 얻어 인도에 망명정부를 세웠고, 범세계적인 활동으로 티벳의 독립운동을 시작하였다. 라마교와 독립움직임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은 문화대혁명 기간동안 극에 달하였다. 또한 이와 비례하여 해외에서의 독립움직임 역시 거세게 일어났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와의 국경분쟁이 해결되고 양국간의 정상들도 상호 방문 서로간에 화해무드가 무르익고 난 뒤로부터 인도정부는 티벳 망명정부를 인정치 않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중국은 서구가 달라이라마에게 노벨평화상을 줌으로써 티벳의 독립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력히 항의를 하며, 티벳 문제는 중국 국내문제로 외국이 내정간섭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그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단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티벳의 분리를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달라이라마에 대한 노벨평화상 수상은 그것이 미국의 정치적 목적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그 후로 티벳 민족이 신봉하는 라마불교에 대한 강경책의 효과가 미미하자 중국정부는 티벳 민족의 종교의 자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시짱 자치구를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겉모양만으로는 중국정부의 시짱자치구에 대한 지나칠 정도의 온건정책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개방 개혁 이후 연안지역 개발에 사용할 돈도 많지 않은 중국정부가 투자를 해도 그만큼 환수도 되지 않는 이런 오지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붓는다는 맥락은 중국 정부가 티벳인들의 마음을 달래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지도 의심해 볼 만한 점이다. 실례로 현재 달라이라마 대신 시짱 자치구의 정치를 이끄는 사람들,

즉 중국 정부로부터의 녹을 얻고 사는 사람들은 독립운동의 적극적인 열의가 그리 뜨겁지 않다고 말한다. 이처럼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칭짱(靑藏)철도 개통에 따른 중국 정부의 시장자치구에 대한 본격적인 개입과 경제통합 정책, 서부개발을 티벳 식민지화 정책의 하나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티벳인들은 중국 정부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2) 정치구조

1) 민족구역자치

중국은 전국 각 민족인들이 공동으로 수립한 통일된 다민족국가로서 민족구역자치는 중국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정책이며 중국의 기본정치제도이자 중국특색의 중요한 지방제도이다. 민족구역자치는 국가의 통일지도하에서 각 소수민족이 집단 거주하는 지방에서 구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민족자치지방은 자치구, 자치주와 자치 현으로 구분된다. 각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불가분의 관계이다.

2) 마을자치

향, 진정부에서 각각의 마을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주민들 중에서는 촌장이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다. 촌장의 선출에는 남녀차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두 명의 촌장을 세우고 있다. 특히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향, 진정부의 간섭이 심하고 강한 통제를 받고 있는데, 티벳에서의 독립운동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있기에 중국정부는 반중인사들의 부추김에 기인한다고 보고, 외국인이 티벳을 여행할 때는 중국정부로부터의 여행허가서를 획득해야 여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외국인에 의한 티벳 독립 고취를 경계하여, 곳곳에 무비카메라를 설치하고 비밀보안요원을 배치하여, 티벳인과 외국인들의 접촉을 감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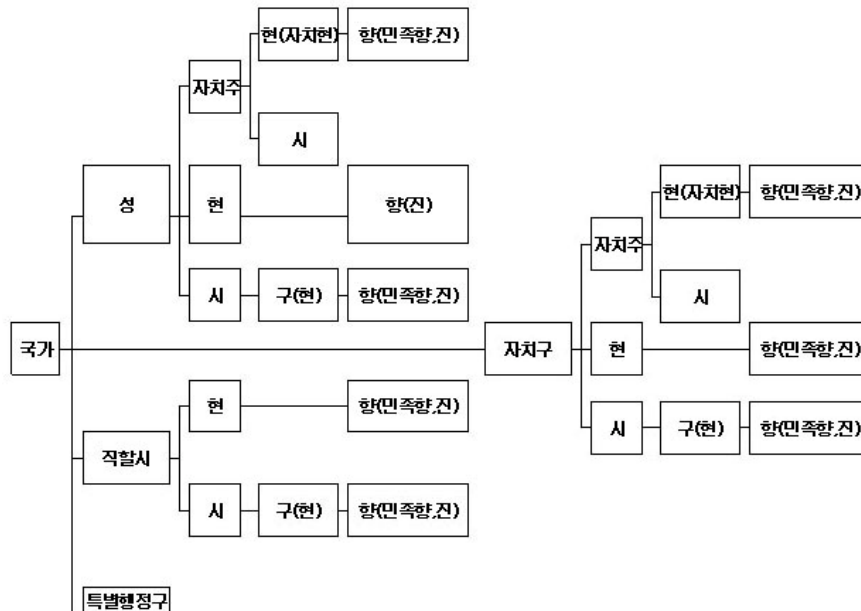
3) 소수민족 정치

중국의 소수 민족 정책은 중국 혁명 과정 속에서 마르크스 민족 이론과 중국 혁명의 실천이 결합되어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성된 산물로서 사회주의의 완성을 위해 마르크스·엔겔스 이론, 레닌 이론, 스탈린 이론, 모택동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민족 정책이 수립되었다. 중국은 중화인민민주공화국으로 세워져 민족구성원들 자신들이 중국의 정치를 이끌어가며, 중국을 구성하는 절대 다수의 한족과 소수민족은 평등하다는 민족 평등 정책, ‘단 하나의 중국’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56개의 민족을 한 중국인으로 묶고자하는 민족 단결 정책, 민족 발전의 기본 원칙 아래 민족 간부 양성 정책, 민족 식별 정책, 민족습관·풍속정책, 민족 인구

정책, 민족 경제발전 정책, 민족 종교 정책, 민족 교육정책, 민족언어·문자정책 등으로 소수 민족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많은 종류로 이루어진 중국의 민족을 거대한 중화민족으로 만드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임을 간파할 수 있다. 실제로 교육,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소수민족들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한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소수민족 학생에게 입시에서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

또한 티벳민족의 리더는 달라이라마로 현재는 망명정부에서 중국내에서의 티벳의 독립을 주장하지만 예전에는 티벳내에서의 정치적, 종교적 절대 권력자의 자리였다. 티벳어로 ‘달라이’는 ‘바다’를 뜻하며 ‘라마’는 ‘스승’을 뜻하는데 이는 곧 바다와 같은 넓고 깊은 지혜를 가진 높은 스승을 뜻하는 말이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는데 특히 티벳불교에선 환생자의 개념이 강하다. 즉, 선대 달라이라마가 죽으면 그 영혼이 다른 아기로 환생해 태어나서 그 선대 달라이라마가 살았던 모든 기억을 되살려 기억해낸다는 것이다.

(3) 행정구조



일반적으로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국의 행정구역은 첫째로 성, 자치구와 직할시로 나뉜다. 둘째로 성,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셋째로 현, 자치현은 향, 민족향, 진으로 나뉜다. 네째로는 직할시와 규모가 비교적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뉜다. 다섯째로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이외에 중앙정부는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중국의 실제

적인 행정구획은 헌법이 규정한 법정구분보다 더 복잡하다. 헌법이 명문규정한 구분단위외에 실제상 지구, 도시에 설치한 가도, 현이하에 설치한 관리구역 및 특수지구에 설립한 행정기구인 경제특별구정부, 개발구, 광산공업구, 자연보호구 등이 소유한 행정구역도 있다.

본 조사팀이 조사한 지역은 시짱자치구 린쯔자치주(지구) 꽁뿌찌앙다현이다. 꽁뿌찌앙다현에 예전에는 9개의 향이 있었는데 그 중 3개(찐다진, 꽁뿌찌앙다진, 빠허 진)는 커서 진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3진, 6향, 128개 행정촌 그리고 186개 자연촌으로 구성되어 있다. 꽁뿌찌앙다현내에는 6개의 향과 3개의 진이 있다. 행정은 시짱자치구 린쯔지구에 소속되어 있다. 1986년에 린쯔 지구가 회복되어 성립된 이후 꽁뿌찌앙다현은 정식으로 린쯔 지구에 속하게 되었다. 향, 진 정부의 간부는 일부 한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꽁뿌짱족이다.

직접 향정부로 들어가 문헌조사를 해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짧게나마 인터뷰한 내용에서 발췌하여 보면 어느정도 소수민족이 관리의 자리에 있어서인지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소수민족에대한 차별도 그리 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4) 요약

중국은 다민족국가이며 그렇기에 쉽게 분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에 한민족으로의 통합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중국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시짱자치구로 중국에 예속되며 이름이 바뀐 티벳은 20세기 중반부터 크고 작은 독립투쟁을 계속해오고 있다. 요즘에는 중국정부에서 티벳민족에대한 온건책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서부대개발이 점점 그 속도를 가속화하고있다. 그렇지만 칭짱철도와 관광특구 지정과 같은 온건책은 그 내면에 단 하나의 민족으로의 대 통합을 꾀하는 중국정부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다. 민족구역자치는 중국이 민족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고 가장 중요한 정치제도이다. 시짱자치구는 그 중에서 짱족,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티벳민족의 자치구를 뜻하며, 하지만 짱족만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한족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중앙정부의 의지, 주택지급 혜택, 임금의 배가향상 등으로 한족의 거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시짱자치구는 또한 7개의 자치주로 나뉘고 그 중 본 조사팀이 방문한 린쯔 자치주는 7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꽁뿌찌앙다현 안에도 6개의 향, 3개의 진, 128개의 행정촌이 있는데 각 마을마다 한 두명의 촌장이 세워져 있다. 현재 꽁뿌짱족의 생활에는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크다. 향, 진 등의 하위급 정부에는 소수민족을 등용하여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을 어떻게든 줄이려 하고있다. 특히 외부인,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대해서는 향, 진 정부에서 직접 사람들의 신원을 조사하는 등 많은 간섭을 하고 있다. 그들은 촌장의 영향력은 실질적으로 미미하며 단지 명목상의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다. 티벳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달라이 라마’이며 그 선출은 환생을 기초로 한다.

칭짱철도의 개통, 그리고 린쯔 공항의 개항으로 티벳의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오랜 시간 문화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티벳은 조금씩 개방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의 이면에는 짱족의 순수한 문화를 지켜내어 관광수입을 높이려는 의지보다, 좀 더 급속한 짱족의 한족화를 꾀하는 중앙정부의 속심을 읽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서남 공정의 일부분이기도 한 칭짱철도는 앞으로 중앙정부의 시장 자치구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데도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열린 그만큼 더욱 선교의 가능성을 열어 주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부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을 이용한 선교방안을 모색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3. 경제분야

(1) 개요

최근 시짱자치구 정부에서는 ‘11.5(2006-2010년)’ 기간 시짱자치구에 1,000억원(元)을 투자하여, 인프라 개선, 농업생산 및 목축지역 생활조건 개선 등 프로젝트를 포함한 180개 프로젝트 시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시짱자치구의 경제 발달을 위한 정책들이 계속 해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짱자치구 경제는 현재 연속 6년간 12%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시짱자치구의 국내생산 총액은 120억원(元) 미만이었지만, 2006년에는 290억 원(元)으로 2배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투자와 소비, 대외무역 등 세가지가 시짱자치구 경제 발전의 주요 분야이다. 또한 칭짱철도 개통과 린쯔(林芝) 공항의 개항 등으로 시짱자치구 대외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짱자치구의 산업은 대부분 농업, 목축업인데 최근들어 공업이 발달하고 있다. 2003년 시짱자치구의 공업 총 생산량은 18억원(元)을 완성했으며 공업이 시짱자치구 지역 사람들의 경제 비중에서 15%를 차지하였다. 향후 시짱자치구는 공업을 적극 발전시키며 산업구조를 조절하고 광산, 삼림, 목축제품, 이 3대 자원의 개발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공업기업 기술 개조를 강화하여 공업 생산량이 주민생산 총량의 비중을 늘릴 것이다. 또한 시짱자치구에는 광물 자원은 풍부하지만 까다로운 지형과 혹독한 기후로 인해 경제는 아직도 미개발 상태에 머물러 있다.

(2) 산업구조

시짱자치구에서는 천연의 목장이 총면적의 66%에 달하여 옛부터 목축이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반면, 양, 야크, 소 등을 방목해 왔다. 또한 농업 기술의 진보로 많은 종류의 곡물과 야채, 과수가 재배되고 있고, 고지에서의 보리 재배나 이모작과 3모작의 농사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수력이

나 지하자원이 풍부하여 그 개발도 기대되고 있다. 수도 라싸를 중심으로 목재 가공, 제분, 시멘트, 농기구, 자동차 수리, 제철 등도 발달되었다. 1991년 중앙 정부와 시짱 자치구 정부가 현 세기 마지막 10년 동안 야루짱뿌강, 핑추하, 라싸하 중부 유역지구에 10억원(元)을 투 자해 수리, 에네르기, 농업 항목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야루짱뿌강, 핑추하, 라싸하 중부 유역 (약칭 '1강2하')은 서장 고원의 중심 지구와 주요 알곡 산지이다. 이 지구에는 서장의 두 개 대도시인 라싸, 시가체와 산남 지방의 18개 현이 망라된다. '1강2하' 공사는 모두 12개의 수리공사, 3개의 에네르기공사, 3개의 농업공사, 여러개의 목축업과 임업공사 및 2개의 농업 종합 개발구의 건설을 포함한다. 린즈 지구 역시 다른 시짱자치구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밭농사와 보리농사, 청과농사(짬바 만들 때 사용하는 것)등을 짓기도 한다.

(3) 발전수준

1) GNP

2004년에 콩뿌찌양다현 전체의 국내생산총액은 약 18012 만 원(元)이며 연초계획의 100.07%를 달성하면서 전년대비 20.8%의 증가를 보였다. 재정수입은 약 886 만 원(元)이며 연초계획의 103.02%를 달성하면서 전년대비 15.5%의 증가를 보였다. 재정지출은 약 4242 만 원(元)이며 연초계획의 100.07%를 달성하면서 전 동시기보다 909 만 원(元)을 더 지출하였다. 기본건설은 7230 만 원(元)으로 연초계획의 약 136.4%를 달성하였다.

2) 천연자원, 삼림자원:

전 토지 면적 중에 삼림이 덮고 있는 비율은 26.95% 인데 그 중 교목림의 비율은 11.54%, 관목림의 비율은 15.41%, 전체 현의 활목림(살아있는 나무들)의 비율은 3,643,5011 입방미터이며 그 중에서 삼림(뽕뽕한 숲)의 면적, 소림(듬성듬성한 숲)지의 면적, 나무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숲의 면적, 사방수(거의 흩어져 있는)의 면적의 비율은 97: 0.47: 2.35: 0.17: 0.01이다. 삼림 면적은 14.9만 헥타르이다. 현의 생태 환경 보호와 여행업의 발전을 위해 최근에 현은 식수(植樹) 조림(造林)의 사업을 벌였는데 현재까지 11헥타르의 인공림을 조성하였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임지도 315 헥타르에 이른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경작지를 다시 숲으로 돌리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8000 묘의 경작지를 숲으로 다시 돌릴 계획이다.

① 수력자원

니양(尼洋)강의 유역면적이 15459평방미터로서 낙차는 2273미터이고 연평균 유량은 220억 입방미터로서 매초 5338 입방미터 정도이다. 수자원 저장량은 208만 킬로와트이고 니양(尼洋)강의 큰 줄기 외의 기타 수많은 작은 지류들은 아직 정확한 측정이 불가하다. 콩

뿌찌앙다현의 낙차 큰 특이한 지형은 지역 경제와 산업발전에 유리한 풍부한 수량을 제공하며 수력 발전 외에 인간과 가축의 식용수, 농업관개용수로도 사용된다.

② 광산자원 및 동식물자원

풍부한 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자연과 환경보호의 차원에서 아직 많지 않은 부분이 조심스럽게 개발되고 있는 정도이며 현재 2개의 아연 등의 광산이 있다. 동식물자원도 풍부해서 각종 야생동물이 63종 야생식물이 287종이 있다.

(4) 요약

시짱자치구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삼림, 수력, 광산 등 자연 자원을 이용하는 산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삼림자원이 풍부하며 임업, 목재 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또한 광산자원과 같이 풍부하지만 아직 개발이 많이 되지 않은 것도 있다. 최근에는 칭짱철도 개통과 린쯔공항의 개항 등으로 시짱자치구 대외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린쯔지구, 꽁뿌찌앙다 현 역시 티벳 전체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꽁뿌 짱족인들은 농업, 목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밭농사와 보리농사, 청과농사등을 짓기도 한다.

시짱자치구정부의 경제개발 정책, 관광산업의 발달 등으로 인해 시짱자치구의 경제는 점점 발전해 가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중국도 점차 노동력 과잉현상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는 것은 점점 쉬워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현재 시짱자치구의 경제수준은 매우 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짱족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넉넉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돈을 구걸하는 사람도 정말 많이 있다. 아직까지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들의 마음을 여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들의 생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 역시 효율적인 선교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생활분야

(1) 개요

10시가 넘어야 해가 뜨기 때문에 콩뿌짱족의 하루는 비교적 늦게 시작된다. 아침을 먹고 일과를 시작하면 작은 상업을 하는 콩뿌짱족의 가게들은 10시가 넘어야 문을 열고 장사를 시작한다. 관광객들이 많은 여름철에는 가게들이 더 일찍 문을 연다고 한다. 아침을 먹고 일이 있는 사람은 나가서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집에서 TV를 보거나 밖에서 사람들을 만난다. 여자들은 집안일을 하거나, 여러 명이 모여 함께 양털을 뽑는 등 부업을 한다. 저녁 6시~7시쯤이면 다들 집에 들어와서 가족과 저녁을 함께 시간을 보낸다. 10~11시에 라면을 먹으면서 밤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잠이 들기도 한다. 여름에는 일출 시간이 달라진다.

(1) 식생활

콩뿌짱족의 주식은 찹쌀과 밀가루, 야크고 기이다. 소, 돼지, 양고기, 수유, 우유 침전물(奶渣)스완나리와 각종 채소와 버섯을 먹기도 한다. 음료는 수유차, 칭차와 칭커주(青棵酒)를 주로 마신다. 하루에 3-5끼를 먹는다. 주로 아침에는 찹바, 점심에는 쌀밥과 반찬들, 저녁에는 면 류의 음식을 먹는다. 하루에 4끼를 먹는 경우에는 주로 아침에는 찹바, 점심에는 아귀(뽕즈라고 하기도 함), 저녁에는 만토, 밤에는 면 류의 음식을 먹는다. 일부 콩뿌짱족인들은 쌀밥을 먹으면 위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찹바는 찹바 가루를 손으로



<사진Ⅲ-2> 전통음식

몽쳐서 먹는다. 미숫가루와 비슷한 맛이다. 찹바 가루에 수유차를 많이 넣어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것은 미숫가루에 우유를 섞은 듯한 맛이다. 콩뿌찌양다 지역에서 야크(마오니우<毛牛>)를 방목하여 기르기 때문에 야크 고기를 많이 먹는다. 말려서 육포로 먹기도 한다. 아귀는 전병과 비슷한 음식으로 밀가루를 둥근 형태로 펴서화로에 구워 먹는다. 기타 음식으로는 볶은 면(차오미엔), 감자볶음 등이 있다.

짱족의 전통주인 칭커주(青棵酒)를 마시는데 알코올 성분이 거의 없으며 곡식주이다. 콩뿌지구 짱족 가정에는 대체적으로 가정 주부가 음식을 만드는 데, 평일에는 매일 3번 식사를 한다. 아침엔 8-9시 사이에 밥을 먹으며 전통적으로 구운 전병이나 만터우와 고기류, 혹은 가축 젖 등을 먹는다. 오후 1-2시 정도에 점심을 먹으며 점심으로는 찹바나 구운 전병, 볶은 요리나 고기류를 먹으며 수유차나 칭차를 마신다. 저녁 7-8시 정도에 저녁 식사를 하며 저녁엔 면류나 찹바 죽 같은 것을 먹는다. 봄에 파종할 때나 가을에 추수할 때 등 농번기로 바쁠 때는 하루에 식사를 4번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매년 농번기에는 비교적 풍성하게 차려놓고 식사하는데 필수적으로 만족할 만큼의 청커주(靑棵酒)를 갖춰야 한다. 식사하고 차를 마실 때는 장유의 순서와 주객의 순서에 따라 자리에 앉는데, 이에는 특별한 규칙이 있다. 일반적으로 화로 근처가 주인석 인데 남자들이 화로의 좌우에 앉고, 그 중 나이드 사람이나 존귀한 손님이 난로 바로 근처에 앉는다. 그런 후에 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앉게 된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오른쪽에 앉게 되는 데, 그중 가정주부들이 난로의 바로 곁에 앉고, 그런 후에 연령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앉게 된다. 아이들과 일반 (별로 귀하지 않은) 손님들은 난로를 마주 보고 있는 앞쪽에 앉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커주나 맥주 등의 술을 하나의 음료로 즐긴다. 술을 마시고 취하여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없다.

(2) 의복

꽁뽕짱족의 짱족복장은 평상복과 명절성장, 특수 노동 시 입는 노동복 등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꽁뽕짱족은 신년이 되면 다른 짱족과는 다른 옷을 입는다.

1) 평상복

한족화의 영향으로 현재 전통 의상보다 현대식 의복을 입는 사람이 많다. 여자들보다는 주로 남자가 현대의복을 많이 입으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한 여름인 8월이 제법 선선한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선크림을 모르는 그들은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햇살을 피하기위해 반팔, 반바지는 거의 입지 않는다. 하지만 반팔을 입는 경우엔 속에 긴 옷을 입고 그 위에 받쳐 입는다.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땀이 나도 바로 마른다. 겨울에는 야크털로 만든 옷을 입거나, 현대의복 중에는 오리털 파카, 가죽잠바를 외투로 입는다. 목도리와 장갑도 있으며, 필요에 따라 마스크도 쓰기도 한다.

2) 명절 성장



일반 남성은 장식 외에 여덟 개 에서 열 개 이상을 입고 걸친다. 모자, 상의(내의를 포함해서), 바지(내복을 포함해서), 장족 두루마기와 과수(果秀)라는 조끼, 신발, 허리띠, 신발 띠 등 일반적으로 많은 장신구를 착용한다. 여성들도 역시 여덟 개 에서 열 개정도의 옷을 입는데 셔츠와 금은으로 제작된 허리 띠 등이 남성들과 다르다. 머리는 얇은 실을 이용해 땅고, 목에는 금은과 마노, 산호, 구연주로 장식된 목걸이를 걸고 가슴 앞부분에는 금과 은으로 구성되어 송진으로 연결된 목걸이를 건다. 일반적으로 꽁뽕짱족의 명절 복장과 장

<사진Ⅲ-3> 전통옷(평상)

식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 남성들이 봉제와 가공제작을 한다. 가격은 몇 천원에서 비싼 것은 몇 만원에 이른다.

3) 노동시 입는 노동복

남녀구분 없이 나무를 베고 돌을 지고 나르는 등의 일을 하는데 이런 때는 일반모직 물의 옷을 입고 보다 더 간단한 일을 할때는 과수(조끼)를 입는다. 여름에는 모직으로 된 것, 겨울에는 일반적으로 털가죽으로 제작된 과수를 입는다. 여성들의 겨울 과수는 새끼 송아지가 죽이나 산양의 가죽으로 제작하고, 남성들은 야생 양가죽이나 영양가죽으로 된 것을 입는다. 가죽으로 제작되었기에 견고하며 내구력이 있고, 밀림속에서 일을 할 경우에 나무나 돌을 벨 때 손상되는 것을 방지한다.

(4) 주거

1) 주거 및 가옥 형태, 재료, 냉, 난방

공뿌짱족은 집을 지을 때 자연조건(바람과 물)을 배려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양지를 바라보고 음지를 등지며 물과 비교적 가깝고 비교적 솟은 모양(ㅍ)의 지대에 짓는다. 먼저 라마



<사진Ⅲ-4> 가옥형태



<그림Ⅲ-3> 가옥구조

승에게 풍수를 보아달라고 한 후 위치를 정하고 첫 불공을 드린 후 길한 날짜를 정해 정식 공사를 시작 한다. 이것도 역시 먼저 지시가 있어야 하며 맘대로 공사에 착수 할 수 없다. 공뿌짱파 현에는 강우량이 많고 밀림이 있어 민가에 지역적 특색이 돋보인다. 일반 농업을 하는 민가의 지붕은 대부분 인(人)자형으로 구성되었으며 가옥의 모습은 장방형이고 문은 동쪽 혹은 동남방으로 향해 있다. 지붕의 면은 길고 얇은 목판으로 기와를 만들었고 윗면을 돌덩어리로 누르곤 한다. 이것은 바람으로부터 날아가는 것을 막고 물을 밑으로 내리기 편하게 하기 위함이다. 공뿌민가의 대부분은 2층으로된 방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단층, 혹은 3, 4층의 가옥을 가

지고 있기도 하다(귀족이었거나 영도자). 기본적으로 모두 돌덩어리를 쌓아 벽을 만들고 목재로 동량을 세우지만 목판에 돌과 목재를 이용해 짓는 방법도 있다. 아래층에는 창고 혹은 목축을 기르거나 방직의 용도로 사용한다. 현재 여러 마을에서 정부의 관광 개발 정책에 따라 새로 지어지는 집들은 모두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어진다. 특히, 마을마다 걸부분의 색깔을 같게 함으로써 한 마을임을 알수 있다. 새 집은 나무로 된 전통가옥과는 달리 벽돌로 지어지며, 내부의 모습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유지한다. 집 한 채를 짓기 위해 필요한 8~10만 원(元)정도의 돈 가운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7,8천원(元) 외에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는 정책이다. 개발에 대해 관광업, 상업에 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우호적이나 일반 사람들은 불만이 있어도 정부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른다는 입장이다.

여름의 서늘한 기후로 인해 냉방시설은 따로 없고, 난방시설로는 주 거실에 난로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이 난로는 야크의 똥과 나무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이 지역은 나무가 풍부해 땔감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것은 난방, 조리의 기능을 한다. 집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다. 이 방들은 음식 보관이나 물품 보관의 창고, 침실,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한 방 등의 용도로 쓰인다. 방 안에는 여러 개의 창(침대식 의자)이 있어서 낮에는 의자로 사용하다 밤에는 침대로 사용한다.

2) 도시와 농촌의 차이

현정부 소재지 마을은 집집마다 담이 높은 편이고 담장 위에 깨진 유리를 박아 놓는 등 외부와 차단된 구조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혹시 방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에 일차적으로나마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향, 진, 촌 지역의 집들은 담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문을 통과하지 않고도 담을 넘어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한국의 도시와 시골의 차이와도 일치함을 보여준다.

(5) 위생의료

1) 주요 위생시설(병원)

향 단위마다 1~2개의 병원이 있다. 약국이 있는 곳도 있다. 마을마다 차이는 있지만 서양의, 한의, 짱의 그리고 민간요법 침술사까지 모두 존재한다. 지에띠촌(结地村)의 경우 공뿌찌앙다현 시내에 1개의 병원이 있고 약국에서 약을 사다 먹기도 한다. 하지만 시내까지의 거리가 꽤 되므로 대부분 마을에 있는 1명의 침술사에게 찾아가거나 민간요법으로 치료한다. 병원이 있는 마을에서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 의사와 병원이 없는 마을에서는 그 마을에서 의학을 배운 사람을 찾아가고, 큰 병일 경우에 향 중심에 있는 큰 병원을 이용한다. 작

은 질병(감기나 경미한 상처)의 경우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빠이진 등의 큰 병원으로 간다.

2) 위생관념, 화장실

머리를 한달에 두 번 정도 감는다. 여름에는 강에서 목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겨울에는 하지 않는다. 화장실이 따로 없는 집도 많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집 근처의 공터를 화장실로 사용하고, 일부 지역에는 재래식으로 된 공동 화장실이 있기도 하다. 화장실에서 휴지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설거지나 세탁 시에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6) 환경과 물

1) 하수처리 상황

히말라야의 만년설 덕분에 수자원은 사시사철 늘 풍부하나 향, 진의 마을에는 상하수도 시설이 따로 없다. 니양(尼洋)강의 물을 말을 이용해서 떠오거나 집안까지 수도관처럼 연결하여 사용한다. 니양(尼洋)강은 공뿌짱족인들의 주요 식수 공급원이 된다. 그 외 산간지역에 분포하는 마을은 산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수처리시설은 따로 없고, 오물은 집 밖의 길에 주로 버리고 있다. 오물로 인한 병균에 대한 위협이 있지만 이들은 물이 풍부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소량의 하수 처리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7) 교통 및 전기

1) 교통수단

전통교통수단은 소나 말이었으나 현재는 물건을 옮길 때만 사용하고, 공뿌짱파현의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오토바이와 자가용을 사용한다. 자가용은 일부 공뿌짱족만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대부분이 생계 유지를 위한 트럭이나 승합차이다. 경운기를 사용하는 지역도 있다(농업 지역 등). 오토바이는 가장 흔한 교통수단이며 한 집에 한 대 꼴로 보유하고있다. 가격은 한 대에 4~5000원(元)정도이다.

2) 외부와의 왕래 방법, 마을 이동 시간

향에서 향으로 이동할때에는 아침마다 지나가는 버스가 있어서 그것을 타고 간다. 지나가는 차를 돈을 주고 얻어 타는 경우도 흔하다. 가까운 마을로 이동할 때에는 1인당 5~10원(元)가량을 지불한다. 가흥향 -> 찐다진: 10~15분 가량, 찐다진 -> 공뿌짱파현: 40분 가량의 시

간이 소요된다.

겨울철 눈이 올 때 도로가 유실되었거나 결빙으로 통행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는 차가 가끔씩 있긴 한데 많은 돈을 치러야 한다. 혹은 오토바이를 통해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미니 밴을 택시와 같이 운행한다. 정해진 요금이 있으며, 외부와의 왕래하는 주요 방법이다. 꽁뿌찌앙다현 -> 쯡사향: 5원(元), 꽁뿌찌앙다현 -> 찌앙다향: 10원(元), 꽁뿌찌앙다현 -> 빠이진: 30원(元), 꽁뿌찌앙다현 -> 빠송취: 30원(元), 꽁뿌찌앙다현 -> 라싸: 60원(元)

(8) 대중매체 보급률

대부분의 가정에 전기가 공급되며 TV, DVD 도 설치되어 있다. 1999년에 처음 TV를 보기 시작했는데, 따로 수신기가 필요하다. 장족 언어로 방송되는 시장방송국 채널 하나뿐이다. 한어 방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TV를 통해 한어를 배운 짱족도 있다. 이들은 한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한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시장방송국 채널 하나만을 볼 수 있다. 차관(茶管), 초대소, 식당 등에도 TV와 DVD기기가 설치 되어 있다. 이들이 TV를 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TV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다. 휴대폰은 1년전에 개통되었고, 통화료는 한 달에 50원(元)정도의 수준인데, 아직 대중화 되어 있지는 않다. 마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부유한 몇몇 꽁뿌짱족만 휴대폰을 소지한 곳도 있고, 상당수의 꽁뿌짱족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곳도 있다.

(9) 요약

꽁뿌짱족은 주식으로 찹쌀과 밀가루, 야크고기를 먹으며 음료로는 수유차와 칭차 칭커주를 주로 마신다. 손님을 대접 할 때에도 이들의 주식으로 대접하며, 하루의 식사가 3-5끼 이다. 꽁뿌짱족만의 전통의상이 있지만 한족화의 영향으로 현대식 의복을 많이 입는 편이다. 겨울에는 편의에 따라 장갑, 마스크, 목도리도 있다. 꽁뿌짱족의 전통가옥은 정부의 관광 개발 정책으로 인해 많이 없어졌고, 현재는 정부의 방침대로 가옥의 외부는 현대식으로 시공하고 있지만, 가옥의 내부는 전통가옥의 특징을 가지도록 세우고 있다. 민가 대부분이 2층으로된 방 구조를 가지는데 아래층은 창고, 방직의 용도로 사용되고 윗층에 거실로도 쓰이는 안방과 음식을 준비하는 부엌이 있다. 꽁뿌짱다현의 각 향 단위마다 1~2개의 병원이 있지만 정부차원에서 잘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꽁뿌짱다현으로 나와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 민간요법으로 치료한다. 꽁뿌짱다현 마을을 둘러싼 니양(尼洋)강은 주요 식수 공급원이며,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질병발

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마을사이의 교통수단은 오토바이나 버스이고, 자가용을 보유한 가정은 드물다. 모든 민가에 전기가 공급되며 TV, DVD를 소유한 가정이 많아 한어방송을 통해 한어를 배우고, 문화를 받아드린다.

TV, DVD를 통하여 한족문화를 접하고, 강제적인 가옥변화로 외국인들을 향한 닫힌 마음, 열등의식이 있다. 하지만 스스로의 문화와 생활에 있어서는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이며, 되물려 주는 식이다. 특히 풍부한 물이 있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족한 개발능력, 교육의 문제점이 있으며, 의료분야에서도 민간요법을 통하여 치료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 전문인선교 사역으로 교육과 의료분야가 적절하다. 각 마을에 한어를 가르치는 한어 선생님, 기술적인 부분의 전문인, 전문의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꽁뽕짱족은 TV와 DVD 보기를 즐거움으로 교육과 기독교문화적 프로그램을 방영해주거나, 보급하는 것이 또한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꽁뽕짱족의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함께 TV를 보는데 기독교 애니메이션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여주고, 나누는 교제가 필요하다.

5. 사회분야

(1) 가족구조

1) 가족 형태, 의사결정방식

가정마다 1~5명의 자녀들이 있으며 인구 제한 정책의 영향은 찾아볼 수 없다. 전형적인 대가족의 형태로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밭일 등 외부의 일과 집안일 등의 남녀 구분이 엄격하지 않다. 남편이 요리와 청소를 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평등하며 아이 양육도 동일 분담한다. 출생 시 남아 선호도 편향적이지 않고 일반적이다. 꽁뽕짱족 역시 다른 짱족과 마찬가지로 오체투지를 하는데, 이때 개인 단위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가족 중심으로 함께 움직인다. 마을 안에서는 이웃과의 교류가 잦고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있어서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많이 작용한다.

2) 친인척 관계

대부분 친인척들이 모여서 마을을 구성하고 있다. 결혼을 할때에도 주로 같은 마을이나 근처 마을의 사람과 많이 하기 때문에 결혼후에도 친인척들과 가깝게 지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일을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

다. 한 집에는 대체로 2~3대 정도의 가족이 모여서 같이 살고 있다. 이들은 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외가와 친가가 모두 한 마을에 있는 경우가 많다.

(2) 종족 공동체 구조

현 내에, 작게는 향 안에 속해 있는 작은 마을마다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 단체, 독립운동 단체, 민족 단체 등 여러 가지의 단체가 있다. 대부분의 마을 조직 단체는 노동 단체로 서로의 농사일과 건축일 등에 협력한다. 젊은 계층이 외부 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년 단체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3) 리더십

촌장은 특별한 선출 절차 없이 하고 싶은 사람이 하게 되는데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전부 동의하면 확정된다. 외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촌장의 영향보다는 향 정부의 영향력이 크다. 예를 들어 마을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방문했을 경우 먼저 향 정부의 허가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촌장의 영향력은 미미하며 단지 마을에만 미친다. 여자가 촌장이 되는 경우도 있다. 지에띠촌(結地村)의 경우 역대 촌장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낭격촌의 경우에는 남성이 더 많다. 한 촌에 두명의 촌장이 있는데 마을에 따라 장촌장, 부촌장 혹은 대촌장, 소촌장으로 구분한다. 장촌장의 역할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권력이 부촌장에게 있다.

(4) 여성의 역할과 지위

남녀가 평등하여 대부분의 가사일이나 농사일도 나누어서 하지만 주 역할은 집안일이다. 자녀양육, 가사일 등 내부 일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위가 평등하여 촌장 등 주요 간 부직을 맡는 여성도 있어 사회에 참여하는 여성들도 있다. 이에 특별히 기대하는 여성상이나 지위에 대한 불만과 반목은 없다. 노동, 육아 등 외부일과 내부일을 모두 남성과 함께 분담하므로 여성의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 결혼 또한 부모님에 의한 의사결정보다는 개인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며 이혼 또한 거의 하지 않는다.

(5) 린쯔 공항



<사진Ⅲ-5> 린쯔공항

시짱자치구 내 린쯔(林芝)공항이 2006년 6월 초에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7억 8천만 원(元)의 비용으로 건설된 린쯔(林芝)공항은 시짱자치구 내의 3번째 인민공항이다. 다른 두 공항은 라싸와 참도에 있다. 3000m의 활주로를 가지고 있는 새 공항은 린쯔 지구 내에 있으며 시짱자치구의 수도인 라싸에서 400km 떨어져 있다. 내면 120,000명의 유동 인구를 위하여 2004년 10월부터 준공되기 시작했으며 해발 2,949m에 위치하

고 있는데 다른 두 공항에 비하여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준공 회사에서는 이 낮은 고도가 고산병과 높은 고도로 고생할 수 있는 여행객들을 위한 이상적인 첫 번째 정착점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공항에서는 앞으로 Boeing-757기를 사용하며 청도와 린쯔(林芝) 사이의 항공편을 열어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것은 콩뿌쟁족인들 보다는 주로 외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6) 요약

외부로의 인구이동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친인척들이 모여서 마을을 구성하고 있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집에는 2~3대 정도의 가족이 모여 산다. 가정마다 1~5명의 자녀들이 있으며 인구 제한 정책의 영향은 거의 없다. 남녀의 지위가 비교적 평등해서 대부분의 일을 나누어서 하지만 주로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여성의 지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거의 없고, 여성이 마을의 촌장 등 주요 간부직을 맡는 경우도 흔히 있다. 마을마다 주민의 대표인 촌장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활에 향, 진정부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촌장의 영향력은 주로 마을안에서만 미치고 있는 편이다. 또한 각 마을마다 서로의 농사, 건축일을 도와주는 크고 작은 노동단체들이 구성되어 있다. 쟁족에게 있어서 독립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사안이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독립의지가 많이 약화된 편이다. 또한 라싸, 참도에 이어 린쯔 지구에 3번째 공항이 건설되어서 외부에서의 접근이 보다 더 쉬워지게 되었고, 현재 많은 여행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촌장은 외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향, 진 정부에 의해 그 영향력이 많이 제한되고 있지만 여

전혀 마을안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원래부터 촌장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신임을 얻고 있어야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여러 정보나 의견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가치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또한 친인척 위주로 함께 모여서는 마을 구조상 개인주의보다는 전체주의적인 의식이 강하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 선교 전략을 세울 때 일대 일로 접근하는 방법과 동시에 가족이나 소그룹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 역시 필요하다.

6. 문화분야

(1) 개요

중국은 문예활동을 인민에 봉사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이바지함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혁·개방은 창작활동에도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다만 허용된 자유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 체제 내에서의 자유이지 모든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은 아니므로 결국 중국의 문예활동은 정치적 면에 종속된 것으로부터의 자유로워지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의 화단은 소련의 영향을 벗어나 서구의 화풍을 적극적으로 수입하면서 신사실주의, 전위예술 등의 여러 방면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개혁의 실행으로 인민들의 음악생활도 다채롭게 변모하였는데 특히 배우기가 쉽고 이해하기 쉬운 유행음악들이 급속히 퍼져나갔다. 또한 중국인은 중국 고유의 경극을 즐기는데, 이 경극은 극본, 연기, 음악, 노래, 소도구, 분장, 의상 등의 예술적 요소를 다채롭게 결합한 총체적 예술로써 사실적이기보다 상징적 원리에 의해 세련화된 예술이다.

특히 소수민족 중 장족의 문화를 보게 되면, 그 역사가 유구하며 매우 다채롭고 풍부하며 특이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들의 화산절벽화(花山巖壁化)는 고대선민의 사회생활을 잘 반영해 주는 귀중한 문화요소이다. 장족지구에는 "산가부르기대회"가 정기적으로 거행되는데 이 노래마당의 시기는 곳에 따라 다르며 음력 3월 3일에 거행되는 것이 가장 성대한데, 크기는 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노래마당도 있다. "노래마당" 기간 동안에는 아울러 남녀간에 "포수구(抛繡球: 수를 놓은 공을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 남성에게 던져 주어 사랑을 고백하는 것)" "계란 부딪치기" 등의 오락활동을 한다. 민속무용은 스텝이 웅장하며 익살맞고 생적이며, 그들의 민간문학, 음악, 무용, 기예의 종합 예술인 연극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장족이 주로 사용하는 악기로는 태평소, 봉고, 동고, 징, 생황, 피리 등이 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방작공예품의 하나인 비단은 당, 송시대에 이미 매우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면사와 5색 비단실로 직조한 이 비단은 도안도 매우 아름답고 특이하다.

(2) 예술

전통 음악과 춤이 있다. 그 외에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관심이 없으며, 전통 음악과 춤이 있다고 해도 이들은 거의 즐기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좋아하는 다른 소수 민족과는 달리 춤과 음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그들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지 못한 모습이다.

(3) 명절, 축제오락⁴

1) 공뿌절의 유래

공뿌절은 공뿌지구 민족이 원래 짱력의 시기를 앞당겨 치르는 명절이다. 매년 짱력 10월1일이 다가올 때면 공뿌지구의 남녀노소는 전통의상으로 화려하게 차려 입고 춤과 노래로 신년을 신나게 보낸다. 공뿌의 신년은 지금으로부터 700여년의 역사가 있다. 서기 13세기에 징기스칸이 군대를 지휘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거의 중원의 평정을 눈 앞에 두고 있었던 급박한 시기에 시짱(西藏)의 왕은 한 편으로는 징기스칸에게 항복하여 신하의 예를 갖추는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비밀리에 응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공부의 결왕(杰王)도 적극적으로 시짱(西藏)왕을 도와서 전면적으로 공뿌민족들을 동원하여서 참전준비를 했다. 그런데 공뿌 지역에서 라싸까지 가는 여정이 멀기에 결왕은 군대 원정 전에 시기를 앞당겨서 신년 명절을 지내기로 하였다. 전설에 따르면 앞당겨서 신년 명절을 치른 남자들은 전쟁에서 승리까지 하였기 때문에 더욱 의기양양하게 즐겼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 그 이후로 매년 짱력 10월 1일은 공뿌 지구 민족들에게 성대하고 기쁜 명절이 되었다.

2) 짱족 신년

해마다 마지막 날 저녁이면 가가호호 모든 주민들이 모여서 새해를 맞을 때 먹는 “찌에”(措 - 찰바로만든 제사 음식) 라는 음식을 먹고 기름으로 튀긴 과자와 소고기 양고기 수유차 인삼과 홍사탕 말린 복숭아 사과 호두 등과, 주전자 가득히 칭커주와 수유차를 따라서 이것들을 사람들이 모인 중앙에 배열해 놓는다. 주인은 개를 불러서 아주 친절하게 개에게 말한다 “행복과 기쁨의 개야, 와서 먹어라(드세요)” 공뿌인들은 개가 무엇을 먹든 안 먹든 다 신의 계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보면서, 개에게 조금이라도 실례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 조심한다. 만약에 개가 사납게 짖어대며 접시를 뒤엎는 등 난동을 피운다면 불길한 징조이다. 그러나 개가 “찌에”나 전병을 먹으면

⁴ 명절, 축제오락 파트의 날씨는 모두 짱력임

즉 그 해의 양식이 풍성할 것을 예고하며 수유차나 젖을 마신다면 그 해의 목축업이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말린 복숭아를 먹는다면 모든 가족이 신년에 행복하고 건강할 것을 암시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때 개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 해 마지막 날(30일) 밤에 개가 만약 고기를 먹으면 죽지 않은 사람들도 전염병이 돌아 죽는다고 한다. 근데 이상한 일이지만, 이날 밤에는 개들이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이 날 밤에는 모든 사람이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노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날 밤에는 귀신들이 집에 들어와 사람을 업어간다고 하는데, 잔뜩 먹어서 배가 부른 사람을 무거워서 업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배가 엄청 부를 때까지 먹는다고 한다.

1일 새벽에는 사람들이 예물들과 칭커주를 들고 자신의 집에 가서 가장 좋은 밭 자리에 올려 놓고 풍성한 수확의 여신에게 제사를 드린다. 사람들은 각자 땅에 긴 장대를 하나 꽂아 놓고 장대의 위쪽 끝에는 경전을 적은 천 조각을, 아래에는 보릿대를 묶어 놓는데 보릿대는 여신의 보좌를 의미한다. 장대의 앞에는 각종 맛있는 음식들을 벌여놓고 “여신이여, 여신이여, 오셔서 드시옵소서!” 라고 세 번 외친 후 다같이 제사단을 돌며 춤추고 노래한다.

2일에는 남자들은 말달리며 활 쏘기, 돌 들기, 나무(장작) 찍기 등의 경기를 하고 부녀들은 (남자들의) 말타기와 활쏘기를 위해서 노래로 흥을 돋우는 이외에 서로 모여서 각종 놀이를 즐긴다. 밤에는 장작더미에 불을 지피고 그 곁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장작더미 옆에는 큰 나무통을 놓아두고 각자 한 주전자씩의 칭커주를 가져와서 그 나무통에 부은 다음 모두가 흥겹게 마시면서 논다. 이렇게 노는 것은 다음날 아침까지도 이어지며 3일에는 모두들 부근의 산으로 가서 산 꼭대기에 경전을 적은 천 조각을 매달아 놓는데, 산정상에서부터 산밑에까지 달아놓는다. 이렇게 해서 조상들의 혼에게 제사한다는 것이다.

(4) 결혼과 장례

1) 결혼

결혼 예식이나 특별한 절차는 없다. 남녀가 동침하면 부부가 되는 식이다. 결혼을 하기 위한 특별한 나이 제한은 없지만 대체로 남자들은 10대 후반이 되면 결혼이 가능하다고 한다. 결혼하고 나서 부모와 계속 같이 사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결혼 후 자기 집을 짓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가하게 된다. 일처다부제, 일부다처제는 거의 없다. 간혹 농목인 사이에서 일부양처제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남자가 돈을 벌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위치이긴 하지만 거의 평등한 편이다. 결혼 의식이 많이 현대화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전통적인 부분이 남아 있다. 전통적인 방법은 결혼 후에 4~5일 동안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놀면서 축하해주는 것이다. 이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장례

시체를 땅에 묻으면 벌레가 먹어서 좋은 곳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장을 하고 있다. 천장(天葬)은 조장(鳥葬) 이라고도 하는데, 티벳에서 가장 보편적인 장례(葬禮)이다. 라마불교와 평생을 함께하는 티벳인들은 불교의 윤회사상을 깊이 믿기 때문에, 죽은 후 자기의 시신(屍身)을 신성(神聖)한 독수리가 먹어 치우면, 바로 승천(昇天)하거나 아니면 부귀한 집안에 잉태되어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티벳 각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천장(天葬) 장례(葬禮)는 조금씩 틀리지만, 공통된 특징은 천장사(天葬師, 돔덴(Domden))를 통해 시체(屍體)의 사지(四支)가 분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천장사(天葬師, 돔덴)본인은 죽어서 천장(天葬)을 못하고, 몸을 토막내어 수장(水葬)을 하는데, 이유는 천장사(天葬師, 돔덴)는 티벳에서 하층인(下層人)에 속하기 때문이다. 장례를 치를 때는 라마승이 오는데, 일부 마을에서는 1950~60년대 이후로 천장 풍속이 없어진 곳도 있다.

(5) 예절

1) 인사법, 일반예절, 종교예절

손님이 찾아오면 수유차를 대접해 주는데 이것을 무척 좋아한다. 손님 잔이 조금이라도 비면 계속 수유차를 따라 주려고 하는 등 손님에게 차 대접하는 것을 좋아한다. 향, 진의 초대소에는 오체투지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찾아온다. 이들에게는 숙박비를 전혀 받지 않고, 오히려 음료수와 약간의 돈을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가장 크게 지켜야 할 예절이다.

2) 이사 예절

이사할 때 우선 새 가구들을 들여 놓는다. 이미 가구 전문 판매 거리가 있고 짱족식 가구는 아주 많으며 만드는 솜씨도 훌륭하다. 그래도 만족할 수 없으면 라싸까지 가서 구매할 수도 있다. 짱족식 가구는 특색이 있다. 모두가 낮은 가구들이 모여 조합된 것인데 높이는 1m 50 정도이며 전부 조각한 것이고 솜씨도 훌륭하다. 용이 조각되어 있는 것이 많다. 장롱과 녹음기, VCD 등도 갖춰놓고 호화롭게 거실을 꾸며놓은 경우도 많다. 이사가는 날에는 가족들이 모두 명절에 입는 화려한 옷을 입는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머니는 짱족의복을 입고 손에는 절마 라고 하는 짚은 옥 같은 것을 들고 즐겁게 새집으로 들어간다. 그녀의 옆에는 남편이 칭커찌오 라고 하는 쌀보리술을 든다. 당연히, 사회경제발전과 생활 수준향상에 따라 현재의 많은 남성들은 이사할 때 전통의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손에는 칭커찌오가 아닌 맥주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사를 마치면 집주인은 좋은 날을 골라서 모든 친구 친지들을 불러서 도움에 보답하는 성대한 파티를 연다. 이날의 음식은 매우 융중하며 집주인은 손님들이 하루 종일

신나게 놀게 한다. 손님에게 건네는 선물 역시 꽁뿌짱족의 이사 풍속 중 하나이다. 손님은 주인의 집을 축복하는 표시로 반드시 하다(哈达)와 칭커찌오 또는 맥주를 지녀야 한다. 주인의 집 대문에 도착하면 먼저 하다를 대문 위에 걸어둔다. 주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이후, 주인의 좋은 축원에 대한 표시로 기둥을 향해 다시 하다를 건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주인이 사전에 기둥에 못을 박아 둔다. 그러나 만약 늦을 경우에 손님은 곧 하다를 기둥에 묶는다.) 이것 외에, 또 다른 기타의 선물이 있는데 수유(酥油), 전차(茶砖), 이불(被子), 압력솥(高压锅), 화로(炉子) 등이 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사상관념의 변화에 따라 어떤 손님은 깔끔하게 돈(红包)을 보낸다. 어떤 축하선물이든 상관없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기쁨을 바라고, 후에 주인의 생활이 부유하기를 기원하며, 원만한 가정, 만사가 뜻하는 대로 되기를, 또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표현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선물들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는 기쁨과 그 기쁨 위에 기쁨을 더하게 한다. 꽁뿌지구(工布地区)에서는 먼 곳에서 온 손님, 그리고 자주 왕래하는 친구를 막론하고 주인의 새로운 집에 들어간다. 주인은 우선 향기가 솔솔 나는 수유차(酥油茶)를 낸다. 귀한 손님일 경우에는 윗자리에 앉도록 권한다. 손님을 초대할 때 주인은 공손히 수유차(酥油茶)와 특히 칭커주(青稞酒)를 대접할 수 있다. 첫번째 술잔은 신성한 삼보께 드리며 삼보가 모든 일을 길하게 하시며 극락왕생하기를 빈다. 두 번째 술잔은 고생하신 부모님께 드리며 건강장수, 극락왕생하시길 빈다. 세 번째 술잔은 친구들에게 바치며, 만사가 뜻과 같기를, 극락왕생하기를 빈다.

(6) 인터넷 보급도, 휴대폰, TV, DVD로 인한 영향력

인터넷은 보급되어 있지 않으며, 휴대폰은 부유한 일부 짱족들만 사용하고 있으나 점점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TV, DVD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영향력이 큰 편이다. 왜냐하면 집 내에서는 TV를 보는 것 외에 거의 다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TV로는 주로 하나밖에 없는 짱어방송을 보고 DVD로는 짱어로 더빙된 중국영화나 짱족뮤직비디오를 본다.

(7) 관광지 소개

1) 빠쑹취(巴松措) 호수

8세기에 빠쑹취 호수의 물가에서 라마불교의 닝마파가 시자되었다고 믿어 신성한 호수로 알려져있다. 꽁뿌찌앙다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호수는 빠(巴)강의 상류와 중류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빠강은 니양(尼洋)강의 가장 큰 지류이다.) 이 호수의 표면은 해수면

2,538m이며 25.9평방km의 크기에 달한다. 가장 깊은 부분은 60m에 달하며 매우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하다.



<사진Ⅲ-7> 빠쑹취 호수

(8) 요약

전통 음악과 춤이 있지만 거의 즐기지는 않는다. 해마다 마지막 날 저녁에 모여서 새해를 맞으며 제사를 지내는 짱족 신년과 같은 명절이 있다. 이들의 결혼은 대부분 일부일처제이며 이혼은 거의 없다. 장례의식으로는 천장이 제일 많이 이루어 진다. 천장을 하는 이유는 시체를 땅에 묻으면 벌레가 먹어서 좋은 곳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손님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한편, 외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아직 대중화 되지는 않았지만 PC방이 있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라싸와는 달리 아직 꽁뿌찌앙다 지역에서는 컴퓨터, 인터넷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휴대폰은 부유한 일부 짱족들만 사용하고 있고, TV, DVD는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설치되어 있다. 여러가지 면에서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짱어 신문은 없다. 관광지로는 빠쑹취 호수가 있다.

'자신의 나라의 문화가 제일좋다'라는 문화적 국수주의, 지문화 우월중심주의에 빠지지 않고 철저한 문화적 상대주의의 관점에서 티벳 민족이 갖고 있는 문화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무엇보다 예절바른 태도로 이들을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문화적인 욕구를 TV, DVD를 통해 많이 채우고 있는데, 컴퓨터 보급과 인터넷 활용 교육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지인들을 교육시켜 짱어 신문을 발간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외부의 좋은 것들을 선택적으로 받아 들일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선교 전략이 될 것이다. 현재 시짱자치구는 여러가지로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외부 문화의 유입과 동시에 신앙적인 내용들이 함께 들어간다면 효과적인 선교전략이 될 것이다.

7. 교육분야

(1) 개요

중국정부에서는 교육을 우선발전항목으로 두고, 현재도 계속해서 교육체제의 개혁을 이루어, 지금은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시에, 각급 정부기관에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여, 다양한 방식과 형태의 학교경영을 장려하고 있다. '현대화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는 중국교육발전 방향으로, 교육개혁과 건설을 선도하고 있다. 중국의 교육단계를 보면 취학 전 3-5세 아동은 幼稚園에 들어가 취학전 교육을 받고 대부분이 지방정부에서 설립하여 운영하는 초등학교에서 6-11세 아동들이 교육을 받는다. 초등학교는 기업과 개인이 운영하기도 한다. 한국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中等教育은 12-1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보통 지방정부와 업무부문에서 설립 운영한다. 중등교육기구에는 普通中學, 職業中學와 각종 中等專科學校가 있다. 보통중학은 일반적으로, 初中(우리의 중학교)와 高中(고등학교)로 나뉘며, 기간은 각각 3년이다. 중학교 졸업생 중 일부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며, 일부는 직업고등학교와 中等專科學校에 들어 가고, 그 기간은 3-5년이다. 각자의 중등교육을 받은 후에는 專科(전문대학), 本科(4년제 대학), 研究生(대학원생)교육을 나누어서 받는다. 중국은 고등교육의 기구로 대학교, 단과대학과 高等專科學校를 두어 시행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교수법, 과학연구와 사회봉사 3대 임무를 지고 있다. 중국의 교육구조 중국의 교육구조와 현 세계각국의 교육구조는 기본적으로 비슷하나, 구체적으로 '중국교육구조도'를 참고하면 그 내용을 더 알기가 쉽다. 중국의 교육구조는 다음과 같다.

대학본과생 (4-5년) / 석사연구생 (2-3년) / 박사연구생(3년)
 中等專科學校 (2년) / 中等專科學校 (3년) / 高等專科學校 (3년)
 職業高中 (3년) 혹은 高中 (3년)
 9년 의무교육
 幼稚園 (3년) / 小學 (6년) / 初中 (3년)

한편, 중국의 소수민족교육은 건국 후 50여 년 동안, 4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왔다. 1949년~1966년까지는 민족교육발전의 초급단계라고 할 수 있다. 1967년~1977년, 이시기는 문화대혁명기간으로서 민족교육이 여지없이 파괴된 시기다. 1978년~1984년 문화대혁명 기간의 폐해를 조금씩 회복하고 발전하는 과정이다. 1985년부터 지금까지 민족교육개혁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현재 중국 정부는 몽족에게 교육비 지원과 점수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몽족에게 교육에 대한 의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2) 현황

1) 시장자치구의 교육현황

2005년 말 자료에 의하면 시장자치구에 초등학교는 890개, 교육 센터는 1,568개, 학생은 328,000명 중에 교육을 95.9%을 이룬다. 중학교는 93개, 학생은 121,000명으로 교육을 75.4%을 이루고 고등학교는 13개, 기술학교는 10개, 학생은 46,000명으로 교육을 30%을 이룬다. 시장자치구 대학교에 풀타임 교직원이 523명, 62.5% 몽족 37.5% 한족 & 기타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있다. 시장자치구에 2005년까지는 소학교 6년 의무교육, 2010년 까지는 소학교 6년 중학교3년 의무교육이 실현될것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몽어로 수업을 진행하나 한어와 몽어 둘다 중요시 여기고있다.

2) 마을 별 현황

자아썩향에는 직업기술전문학교 하나가 있다. 자아썩향의 아이들 중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도 있고, 여자들의 경우에는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쩐다향과 쯡사향, 쩐양다향에는 소학교가 1개씩 있다. 몽궤썩양다현에 소학교와 중학교가 하나씩 있다.

3) 학교

① (몽궤썩양다현 초등학교) - 린즈(林芝)지구 몽궤썩양다(工布江达)현

전교생의 수는 670여 명이며, 현재는 5, 6학년 중학교 대비 보충 수업 중이었다. 90명 정도의 6학년 학생이 있으며 거의 대부분 중학교로 진학한다. 현재 몽궤썩양다현(커림카)지역에는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가 있으며 고등학교는 없다. 고등학교는 몽궤썩양다현에 고등학교가 없으므로 린즈현의 빠이(八一)진에 위치한 빠이 고등학교로 진학한다. 농업 대학교 또한 빠이에 위치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영어, 몽어, 한어, 수학, 자연, 사회, 체육이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륙 발전 도시에 위치한 대학으로 진학하기를 원하며 선생님, 의사, 공산당원, 군인 등의 직업을 선호한다. 전교생의 약 90%가 몽족이며 대부분의 몽족이 몽궤썩족이다.

이외에 한족이 약 10%, 회족이 약 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② (빠이 고등학교) - 린쯔(林芝)지구 린쯔(林芝)현 빠이(八一)진

전체 학생수는 2000여 명이며, 40~50개의 반을 구성하고 있다. 현재는 대학교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3학년 보충 수업 중이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공통적으로 영어와 수학, 어문⁵을 배우며 이과의 경우, 생물과 화학, 물리를 배우며 문과는 역사와 정치, 지리를 배운다. 대부분 선생님, 의사, 공산당원, 군인 등의 직업을 선호하지만,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은 직업과 비전보다도 대학 진학을 우선시 하고 있다. 또한 위의 직업을 선호하는 이유도 직업을 자신의 의사보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선택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래성이 밝고 경제적인 이윤이 많이 남는 직업을 선호하는 한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전체 학생 수의 약 60~70% 정도가 짱족이며 나머지 20~30%가 한족이며, 극소수의 회족과 다른 소수민족이 재학하고 있다.



<사진Ⅲ-8> 고등학교



<사진Ⅲ-9> 초등학교

(3) 인식

아직은 교육열이 그리 높지 않고 상급학교 진학도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소수 민족들의 교육열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왜냐하면 정부에서의 지원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짱족들의 교육비는 짱족과 정부에서 반반 정도로 부담하고 있으며 점점 이 지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교복, 급식 등의 부가적인 것들은 모두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이로 인해 교육에 대한 환경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며 이에 배우고자 하는 교육열이 높아

⁵ 어문 = 우리나라의 ‘국어’과목과 같은 것

지고 있는 추세다. 대학 진학 시 소수 민족에 대한 점수 지원도 있다. 우리나라의 농어촌 자녀 혜택과도 비슷한 제도이다. 예를 들어 한족과 짱족이 동일하게 400점을 맞았을 경우, 짱족에게 20점 정도의 가산점을 부여해 준다. 이 같은 지원으로 인해 교육에 대해 무지하였던 짱족에게 교육에 대한 의식이 생겨났으며 날이 갈수록 교육열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4) 대학

린쯔(林芝)현 빠이(八一)진에 농업대학이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군인, 선생님, 의사, 공산당원 같은 안정된 직업을 선호한다.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이 있을지라도 사회 분위기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에 오면서 시짱자치구를 벗어나 북경, 상해와 같은 도시로 나간 젊은 층은 자신들의 선호 과목을 선택하고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

(5) 요약

몇몇 마을에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는 퐁뿌쩌양다 현에 있다. 또한 빠이(八一)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서 린쯔(林芝)지구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곳으로 진학한다. 대부분의 짱족과 마찬가지로 교육열은 그리 높지 않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소수민족 지원 정책으로 인해 교육열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학교 교육도 의무교육이 되어가는 단계이고 대학 진학하는 젊은 짱족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전반적인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면 한어로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한어로 된 성경, 기독교 방송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퐁뿌짱족을 비롯한 짱족들은 오랜 시간동안 고립된 문화안에서 자내왔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닫혀 있고 비교적 좁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교육보다는 실질적인 기술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교육열이 많이 낮은 편이다. 그렇기에 현재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교육이다. 직접적인 선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현실을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보다 높은 수준의 한어 교육을 통해 시짱자치구 외의 중국에서의 적응력을 키워 주는 것이 필요하다.

8. 종교분야

(1) 개요

티벳불교는 흔히 라마교(Lamaism) 라고한다. 티벳불교의 역사는 7세기때, 손첸캄포리는

뛰어난 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당(唐)과 네팔 출신의 칩주엔프(ChifZuenf)와 당나라 출신의 웬정(Wencheng) 왕비가 처음 들여온 중국계와 인도계 불교를 수용해 주술(呪術)을 중시하는 티벳고유의 신앙인 뵤(Boen)교와 혼합한 형태의 불교를 주창해, 티벳불교를 창시했다. 또한, 손첸감포 왕은 티벳불교의 중심인 라사를 창설했고 수많은 불경번역과 티벳의 공식문자를 창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8세기 중엽 인도의 산티락시타 (Santi-raksita)와 파드마 삼바바가 밀교(密敎)⁶를 전해, 이후 티벳불교의 근본은 밀교(密敎)가 됐다. 842년, 란마르다 왕은 티벳불교를 폐교시키고 민족의 종교인 본교를 부흥시켜 수난을 겪게 되지만 티벳불교는 2백년뒤인 1042년, 인도에서 초빙된 아티샤(Atisa)에 의해 다시 개혁돼, 이 때부터 밀교의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 그후 중원의 패자(覇者), 원(元)나라에 전파돼 국교가 됐고, 이후 몽고와 명(明), 청(淸)나라에서 융성했는데, 그 영향으로 티벳불교는 몽고, 만주와 중국, 러시아, 북인도에 퍼졌고, 한국 불교에도 라마교의 영향을 적지 않게 미쳤다. 이 오랜 발전속에서 닝마파, 사카파 등 많은 분파를 형성해왔었다. 14세기 말까지 티벳불교는 권력과 결탁해 극도로 퇴폐해져 타락한 밀교 행위와 주술만을 하게 되는데, 총카파(Tsong-ka-pa, 宗喀巴)가 엄격한 계율을 도입하고 대승교학을 기초로하는 일대 개혁을 벌였다. 이때 총카파는 노란모자(Dge-lugs, 黃帽) 파를 만들어 이전의 붉은모자(赤帽) 파와 구분했는데, 총카파의 제자 가운데 겐둔그룹(Ge'dun-grub; 1391-1495)이 초대 달라이 라마 (Dalai Lama)가 돼 현재까지 14대에 이르고 있다.

(2) 종교현황

대부분의 집에는 포탈라 궁과 달라이 라마의 사진이 걸려 있다. 몇몇 민가에는 석가모니상이 있었는데, 제사를 지내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마을과 사원에는 오색기가 걸려있는데, 이 다섯 가지색은 각각 산, 하늘, 바람, 물, 구름을 상징한다. 초, 중, 고에서는 종교 수업이 없고, 대학에 가면 라마 불교를 배우는데 가르치는 사람은 전부 승려이다.

오체투지는 주로 여름, 가을에 많이 한다. 또한 포탈라 궁을 도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마을의 평안과 목표달성을 위한 것인데 큰 의미는 두지 않고 있으며, 마을마다 주민들이 기도하러 가는 사원이 있다. 리서치한 지역은 모두 100% 라마 불교였으며 집 내부에는 달라이 라마, 포탈라 궁 등의 종교적인 사진이 걸려 있었으며 빠이, 라짜, 커림카 등에 위치한 사원에 가기도 한다. 현재 의식이 개인 젊은 층은 오체투지 등의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의무감 또한 거의 없다. 젊은 층들은 통일된 종교관이 아니라 서로의 종교관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적 의무감의 차이를 주장하고 있는 등 종교적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

⁶ 불교의 흐름 속에서 특수한 발전을 보아온 하나의 비밀불교

(3) 종교특징

이들은 마니차와 마니통을 돌리면서 티벳 불교에서 승려들이나 신도들이 사찰을 돌며 예불을 드릴 때에 사용하는 주문인 ‘옴마니반메훔’ 을 외우는 것이 일상화 되어있다. 이는 '더 이상 사바세계에 윤회로써 태어나지 말게 해 달라' 라는 뜻이다. 전신으로 절을하는 오체투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살면서 한번쯤은 라싸에 있는 사원들을 도는 순례여행을 한다. 종교행위는 하나 꽁뿌짱족의 대부분인 농민들은 종교에 대한 열정과 깊은 생각은 없다. 태어나서부터 티벳불교 환경에 살아왔기 때문에 티벳불교를 당연히 여기고 외부의 간섭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월드컵을 모를정도의 제한된 세계관을 가지고있다.

(4) 종교지도자

라마(Lama)는 덕이 높은 스승을 의미한다. 라마는 환생에 의한 계승을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어느 마을이나 환생 라마가 있다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져왔고, 그런 이유로 환생라마는 수가 많이 늘어났다. 라마앞에 붙는 접두어는 큰 라마에 대한 존칭인데, 최고 지위인 '달라이 라마'의 달라이(Dalai)는 몽고어로 바다를 뜻한다. 짱족은 자신의 나라를 관음(觀音)의 정토(淨土)라고 생각하는데, 그 통치자인 달라이 라마를 관음의 화신(化身)으로 믿고 있다. 현재 14대 달라이 라마는 1959년에 중국에서 추방을 당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안 시짱자치구 내에서는 2인자인 11대 판첸라마라 리더의 역할을 맡고있다. 꽁뿌짱족들은 달라이 라마가 감당해야할 역할을 못해서 배신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짱족들의 종교심은 줄어들지 않는다. 어렸나이 때부터 사원에 보내어 라마승으로 키우는 것이 아직 흔하다.

(5) 기독교 개요

18세기 중반부터 선교단체들은 티벳선교에 힘써왔지만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중국에 개혁과 개방이 진행되면서 북경의 공산당 행정기간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수를 극적으로 늘렸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의 라싸가 관광객들을 향한 문을 연 사건을 통해 선교사들로 중앙티벳을 최근 어느 티벳역사에 어느 때보다도 더 접근하기 쉽도록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 지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복음화를 위해 선교 지역에 대한 타당성 있는 자료와 비전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서 라싸지역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범위안에는 300여 명이 예배드리는 지하교회가 있으며, 진정한 그리스도 인의 인구는 100여명 정도이라고하셨다. 반면 사역자가 없는 꽁뿌지양다현에는 알려진 교회나 기독교인이

없다. 기독교라는 서양 종교가 존재하는 것을 아는 소수가 있었지만 특별한 관심이나 받아드릴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고등학생 이상의 학생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기독교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었다. 아직은 종교적 변화에는 열리지 않았지만 준비되는 과정인 것 같다. 현재 청두 등 대도시로 나와서 공부하는 몽족들(청년, 대학생 등)은 의식이 깨어있고 라마 불교에 대한 신앙심도 희박하여 전도의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한어를 배우는 몽족들이 한어로 인해 복음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1885년에 신약성경이, 그리고 1948년에 몽어로 성경이 번역되었고 ‘예수’ 영화와 기독교 라디오 방송(Far East Broadcasting Company)이 있다. 라싸몽어와 몽골몽어가 유사하므로 복음을 전할 도구는 준비되어있다.

(6) 요약

손첸캄포왕으로 시작된 티벳불교는 7세기때부터의 오래된 역사를 가져, 몽족들의 삶에 깊숙히 뿌리박힌 종교이다. 절대적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를 따라 여러 세대를 거친 티벳은 1959년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부터 내부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있다. 달라이 라마가 추방당하면서 통치권이 중국정부로 넘어가 시짱자치구는 관광지로 개방 개발되고있다. 아직도 집 내부는 라마불교 벽화와 달라이 라마, 포탈라 궁 등의 종교적인 사진이 걸려 있고 마니차와 마니통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전 세대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받는 학생들은 세계관도 넓혀지며 기독교에 호기심을 보인다. 몽골지방파현에는 사역자가 없어 아직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지만 이 리서치를 통한 선교전략으로 복음화가 빨리 이루어지길 기도한다.

IV. 공부장족(工布藏族) 선교전략

1. 선교 현황

(1) 선교단체

그동안 많은 선교사와 선교단체에서 시짱자치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하지만 아직 충분한 열매는 맺히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수도인 라싸에는 3개의 사역단체가 선교를 하고 있다. 라싸를 중심으로 여러 명의 장기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모두 비밀리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와 현황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조사팀은 공부찌양다현 안에서 현재 사역중인 선교사, 선교단체, 교회의 존재는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다. 많은 주민들이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상태이고, 외국인이 장기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라싸와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사팀은 현재 공부찌양다현에서는 어떠한 선교사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추정한다.

(2) 선교에 대한 정부의 태도

중국은 19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 대회 제5기 5차 회의에서 채택된 헌법 제36조(종교신앙에 관한 조항)에 인민에게는 종교 신앙의 자유와 믿지 않을 자유 모두 있다² 밝히고 있으나 자치(自治) 자양(自養) 자전(自傳) 등 삼자정책(三自政策)에 근거하여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 외국세력을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운용해 가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1983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 삼정정책(三定政策) 곧 제삼자(第三者)에 의해 지정된 장소, 삼자에 의해 지정된 구역, 삼자에 의해 지정된 목사 등 성직자에 의해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가정교회 등 자유로운 포교 및 교회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전도 행위 또한 제한하고 있다.

(3) 현재의 필요

현실적으로 공부찌양다현은 장기선교사가 들어가서 사역하는 것이 불가능한 곳이다. 외국 인과의 관계에 대해 정부의 간섭이 심할뿐 아니라 거주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정책은 위와 같

으나 중심지를 벗어난 향과 같은 작은 규모의 마을에서는 재제가 약한 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들의 생활에 정부가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 종족을 장기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역자가 없는 상황이다.

2. 선교의 방해요소

(1) 접근의 어려움

티벳은 인구에 비해 땅이 무척 넓기 때문에 라싸에서 공뿌찌앙다까지 4~8시간 가량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또한 외부인, 특히 외국인이 머무를수 있는 곳은 초대소를 제외하면 전혀 없다. 또한 향, 진에 있는 초대소의 경우에는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뿌찌앙다현에는 여러 개의 초대소가 있는데 이곳은 향, 진의 초대소에 비해서는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이곳 역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통 부분에도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운행되는 대중교통은 거의 없어서, 지나가는 차에 적당한 돈을 주고 동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정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2) 폐쇄적인 세계관

이들은 오랜기간 지리적, 문화적으로 고립된 환경에서 역사를 이어왔기 때문에 외부세계에 대해 폐쇄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그나마 TV의 보급, 교통의 발달등의 이유로 외부세계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뜨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물 안 개구리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신들의 생활과 문화 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속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모습을 자세히分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문화를 비롯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

(3) 라마불교

이들은 라마불교의 교리와 생활 양식들을 무비판적인 태도로 당연한 진리로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이들의 문화와 생활은 대부분 라마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뿌리 내리는 것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가족끼리 라싸를 향해 오체투지 하는 것, 집집마다 라마의 사진을 걸어놓는 것 등 라마를 숭배하는

행위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관이 선교에 장애가 된다.

(4) 언어적 한계

기본적으로 몽족의 몽어와 중국인의 한어는 전혀 다른 언어이다. 최근에는 한어 TV 방송과 학교에서의 한어 교육으로 인해 몽족 사이에서 한어 사용능력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자유로운 대화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어 통역만 포함된 본 조사팀 역시 언어로 인해 몽족과의 대화에서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했지만, 원활한 의사소통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어에 비해 몽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선교사는 많지 않기 때문에 선교에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몽족의 한어 구사 능력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언어로 인한 한계가 점차 좁혀질 것이다.

(5) 정부의 정책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기독교의 자유로운 전도를 제한하고 있다. 이들의 생활에 미치는 정부의 영향력이 무척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선교에 큰 장애가 된다. 또한 선교사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외부인, 외국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함, 진 정부에서 실질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을 자신들의 집에 재울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 지키게 하고 있다.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몽족에게 다가가는 것에도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3. 선교전략

(1) 복음의 접촉점

아직까지 몽족에 대한 활발한 선교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몽족 선교에 대한 성공사례는 찾을 수 없다. 다만 몽족 선교의 성공사례가 몽족에게도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므로 몽족 선교의 성공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최근에 들어 와서 티벳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사역자들, 외국인들, 중국인들과 몽족들이 서북부지역을 여행할 기회가 많아졌고 다양한 방법(카세트 테이프, 라디오, 대화와 교제)으로 복음을 증거한다.
- 2) 몽족은 작은 부족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핵심인물들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하여 복음을 증거한다.

- 3) 극동방송은 1990년부터 매일 15분간 짱어 전도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 4) 도시에 나와서 공부하는 짱족 학생들 중심으로 셀 그룹을 만들어 예배와 훈련을 받게 한다.
- 5) 라싸 지역의 J 선교사님은 알파 코스를 활용해 짱족들과의 교제를 갖고 있다.

(2) 선교전략 제언

1) 의료 분야

향 단위마다 1~2개의 병원이 있지만 본 조사팀이 방문한 곳 중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병원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병원이 없는 마을에서는 큰 병일 경우에는 주변 지역의 큰 병원을 이용하지만, 작은 질병일 경우에는 민간요법으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니비촌 촌장 아주머니의 경우에는 치통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얼굴에 파스를 붙이고 있는 등 잘못된 의학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흔한 선교 전략중 하나일 수 있지만 꽁뿌짱족에게도 역시 의료 분야는 효율적인 선교 전략중 하나이다.

2) 컴퓨터 지원 및 교육

현재 TV, DVD는 대중화 되어있고 휴대폰은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꽁뿌짱족에게 사용되고 있다. 반면 컴퓨터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컴퓨터 기기 지원 및 컴퓨터 교육은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다른 지역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이들의 세계관을 넓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해주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의 협의를 거친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컴퓨터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면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3) 외국어 교육

다른 짱족과 마찬가지로 꽁뿌짱족 역시 다른 지역에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것에는 가치관의 차이도 있겠지만 언어적인 한계 역시 작용할 것이다. 같은 중국이라고 해도 짱어와 한어는 전혀 다른 언어이므로 현재 꽁뿌찌앙다 지역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한어,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단기 캠프, 언어 연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꽁뿌짱족인들, 특히 학생들이 외국어를 잘 배워서 다른 지역에 적응하는 것을 돕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면 이들의 마음을 여는 좋은 통로가 될 것이다.

4) 직업 기술 관련

본 조사팀이 만난 한 콩뿌짱족 청년은 충분한 돈이 있으면 무엇을 갖고 싶냐는 질문에 농기구를 사고 싶다는 대답을 하였다. 콩뿌짱족인들의 직업은 대부분 농업, 목축업인데 좀 더 편리하고 효과적인 농기구를 지원하고 관련 기술을 가르쳐준다면 이 청년뿐 아니라 많은 콩뿌짱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농업, 목축업뿐만 아니라 이들이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필요한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 역시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5) 미디어 선교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현재 콩뿌짱족 대부분의 가정에 TV, DVD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이 이것을 보는 시간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 한어로 방영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짱어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매우 좋아한다. 따라서 짱어로 제작된 DVD 를 통한 정보교류는 중요한 복음의 접촉점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수 관련 영화에서 일부를 짱어로 더빙한 영상의 경우 좋은 예가 될 것이다.

6) 놀이 문화

본 조사팀이 방문한 마을에서는 콩뿌짱족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당구를 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그 외에 특별한 놀이문화는 발견할 수 없었다. 아직 짱족의 폐쇄적인 세계관이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는 어린이들 역시 중요한 복음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 이들에게 보다 교육적이고 재미있는 놀이문화를 가르쳐주며 어린이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콩뿌짱족에게 한걸음 더 나아가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3) 주체별 역할

아직까지 직접적인 선교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에 전문 기술, 지식을 활용한 사역팀이 많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 컴퓨터, 외국어, 농업기술, 미디어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의 헌신이 필요하다. 또한 콩뿌찌앙다현을 포함한 린쓰지구 교육의 중심이 되는 빠이현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도 효율적인 선교의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기독교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주고 복음을 전하면 학생들을 전도할 수도 있고 이들이 사는 마을에도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 콩뿌짱족의 선교를 위해서는 현지자원과 한국 기독교계, 그리고 한동대 GFR 각각에서 필요한 역할들이 있다.

1) 현지자원

퐁뽀쑤양다 현지에 거주하며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많은 장애가 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머무르면서 정기적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1대1로 핵심인물들과 접촉하며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여야 한다. 또한 이 지역의 전반적인 영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통해 이곳을 찾아오는 여러 단기팀들에게 효과적인 사역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 한국교회 및 관련 단체

쑤족을 포함한 중국의 소수민족 선교는 한족에게 그 책임을 모두 맡기기는 어렵다. 쑤족이 반감을 갖고 있는 한족보다는 오히려 외국인과 다른 소수민족에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중국내 다른 소수민족들 중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쑤족 선교는 한국인에게 맡겨진 시대적인 사명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및 관련 단체에서는 어떠한 선교전략으로 쑤족에게 다가가야 할 것인가?

쑤족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그들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들의 세계를 벗어난 다른 나라, 민족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스스로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부족하다. 그렇기에 특히 교육을 통한 선교가 많이 필요하다. 컴퓨터 교육, 각종 직업 기술 교육, 외국어 교육 등을 통해 쑤족들 스스로가 보다 넓은 세계관과 깊이있는 사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함께 티벳외의 지역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문서를 통한 사역이 필요하다. 현재 퐁뽀쑤족의 언어로 만들어지는 신문이나 책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퐁뽀쑤족 중에서 적절한 사람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들의 언어로 된 문서가 발간하는 것도 그들의 눈을 넓히는 것에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그들과 외부세계를 연결해줄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시도가 필요하다. 다양한 종류의 DVD 지원, 언어연수, 해외여행기회제공, 일대일후원 등을 통해 다른 문화를 배울수 있는 기회와 물질을 통한 교제의 통로를 만든다면 퐁뽀쑤족 선교의 문이 점차 열리게 될 것이다.

퐁뽀쑤족의 복음화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은 퐁뽀쑤족의 삶에는 다른 쑤족과 마찬가지로 오랜기간동안 라마불교의 영향력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라마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강하고 행위중심의 구원관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기에 영적으로 너무도 메마른 그들을 위한 중보와 선교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를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필요한 사역들을 해나간다면 그들은 분명히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민족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 지역과 쑤족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가 많이 필요하다. 특히 리서치와 연구를 통해 적절한 선교전략을 세울 연구원

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선교전략에 적합한 언어, 문화, 신앙, 전문지식등 여러가지 면에서 준비되고 훈련된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쑈족을 위해 쉬지않고 기도해줄수 있는 중보기도자가 필요하다. 한국교회와 선교단체에서는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할 주의 군사들을 양성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물질과 기도로 끊임없이 후원해주어야 한다.

3) 한동대학교와 GFR

쑈족 선교는 이미 여러 선교사와 관련단체에 의해 시도되었고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에는 물론 티벳 자체적인 장애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의 선교에서 효과적인 전략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아직까지 복음의 씨가 심겨지지 않은 미전도쑈족들은 대부분 선교의 방해요소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더욱 뚜렷한 선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해야할 곳이 바로 한동대, 그 중에서도 GFR이다. GFR중에서도 중국의 미전도쑈족들을 품고 있는 CFR에서는 7~8년 전부터 중국의 미전도쑈족들을 리서치하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인 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선교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다. GFR에서는 매 학기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하는 수많은 한동대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을 통해 지역연구 및 리서치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해가고 있다. 이처럼 영성과 지성이 동시에 필요한 역할들을 감당할 인력을 양성하고, 현지에서 필요한 사역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한동대학교와 GFR의 역할일 것이다.

한동대학교와 GFR에서는 계속해서 리서치와 연구, 그리고 현지 선교사와의 연계등을 통해 지역 정보의 수집 및 생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전문적인 조사와 영적인 통찰력으로 보다 효과적인 선교전략을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현 시대는 단순히 복음만을 전하는 선교가 아니라 지역 개발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총체적인 선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동대, GFR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퐁뽀쑈족을 리서치한 본 조사팀은 계속해서 지역연구를 통해 복음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 힘쓸 것이고 계속해서 중보자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라마불교, 중국정부의 정책을 비롯한 어떠한 장애가 있을지라도 퐁뽀쑈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 질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있기를 소망하며 한걸음 한걸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한동대학교, GFR이 되기를 소망한다.

V. 나가는 말

몽꺄꺄족은 몽꺄꺄파현 일대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다른 꺄족과 큰 차이는 없다. 대부분 농업, 목축업에 종사하며, 자연 자원이 풍부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교육열도 다른 꺄족과 마찬가지로 그리 높지 않은데, 현재 정부의 소수민족 지원 정책으로 인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아직 꺄어 신문은 없고, 책은 거의 보지 않는다. 현재 TV의 영향으로 언어,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한족화,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관광 개발 정책으로 생활 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몽꺄꺄족은 다른 꺄족과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고립된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세계관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외부 지역에 나가서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몽꺄꺄족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었지만 이번 리서치를 통해 이들의 실체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적인 한계로 인해 깊은 관계를 맺는 것과, 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들의 생활에 함께 참여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몽꺄꺄족 혹은 비슷한 특성을 지닌 종족을 리서치 하게 된다면 그저 정보만을 얻기 위한 교제가 아니라 종족을 대표할 수 있는 한 두 명의 key man 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몽꺄꺄족의 종교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본 조사팀은 그 동안 거의 알려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 중 하나인 몽꺄꺄족의 실체 성을 파악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리서치 하였다. 복음의 확장을 위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티벳불교권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리서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선교회는 이번 몽꺄꺄족의 보고서를 토대로 티벳불교권의 실체성과 향후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거의 대부분 현지에서 구한 자료를 번역한 내용과 본 조사팀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몽꺄꺄족에 대해 알려진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번 보고서가 몽꺄꺄족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시간적, 언어적 한계로 인해 리서치가 부족한 항목도 있고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지만, 이것은 향후 몽꺄꺄족을 리서치 하게 될 팀에서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또한 거짓의 영에 묶여 있는 티벳의 한 종족을 빛으로 이끌어 내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몽꺄꺄족은 다른 꺄족과 마찬가지로 거짓된 우상의 영에 묶여 있고,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고립되어 있는 종족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혼을 향한 사랑과 함께 진리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청장철도 개통, 린즈공항 개항 등으로 공간적인 한계가 점차 극복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언어, 문화, 시간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종족을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노력과 지혜로운 선교전략으로 이들에게 다가간다면 충분히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雪域高原의璀璨明珠 - 林芝(설원 고원의 가장 찬란한 구슬-린즈)」, (서장 인민 출판사 : 2002.8)
「藏族格言 故事 選集 (장족의 격언과 이야기 모음집)」, (서장 인민 출판사 : 1998)
Paul Hattaway, *Operation China*, (Piquant : 2000),

〈참고한 사이트〉

중국 대사관, <http://www.china-embassy.ch/eng/xwss/t138276.htm>
China Tibet Information Center 2006 통계자료,
http://en.tibet.cn/newfeature/xzt_2006ssysj/xzt_2006ssysj_whjy/t20061229_194543.htm
China Tibet Information Center 닝쯔지구 역사,
http://www.tibetinfo.com/tibetzt/linzhi/2_history%20and%20religion/menu.htm
티벳선교연합회, <http://cafe.naver.com/tibetchanger>
중국대학선교회, <http://www.cum.or.kr>